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2016 '원숭이해' 달라지는 것들

2016년 붉은원숭이의 해인 병신(丙申)년이 밝았다. 2016년부터 미국과 매사추세츠 주의 사회, 경제,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한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법>

최저임금=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9에서 \$10으로 인상된다. 2014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에는 \$11로 또 오른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가 된다.

팁(한 달에 최소 \$20)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3에서 \$3.35로 또한 인상된다. 2017년에는 \$3.7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인 업주들은 상당한 임금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45만명의 근로자들이 월급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이 근로자 중의 60%가 여성 또는 가족의 부모들로 저소득층의 연간 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같은 소득의 증대는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ITC=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2016년 병신년에 달라지는 것들

- 최저 임금 10불로 인상
- 저소득층 MA ETC 인상
- 소셜 시큐리티 혜택 변경
- SAT 시험 변화



주정부 언드인컴텍스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현행 연방정부의 15%에서 23%로 인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금액보다 \$500인상된 \$1442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EITC는 소득과 결혼여부,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된다.

보스톤 BOYB 법 = 12월 16일 보스톤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에 따르면 30석 이하의 레스토랑은 1년에 \$300을 부담하고 BOYB 라이선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식당에 직접 술을 가져가서 마실 수 있다. 아직도 라이선싱보드(Licensing Board)의 시행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2016년 안에 이 법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지난 21일 매사추세츠 교통공사(MBTA)의 재정통제원이 향후 2년간 최고 10%에 달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과연 주의회가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올해 내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예측할 수 있다. 현행 요금은 찰리카드 소지자의 경우 버스요금이 \$1.60이며 지하철은 \$2.10이다. 재정통제원은 1월 초 구체적인 요금인상 제안을 제시하며 1월 말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금법안>

무보험자 벌금 = 올해 세법 관련 달라지는 것들은 오바마케어와 관련이 깊다. 올해 2015년동의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벌칙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벌금은 연소득의 2%이다. 다만 개인의 경우 최대 한도 벌금은 연방 의료보험거래소(the federal healthcare exchange)에서 가장 낮은 프리미엄의 절반인 \$695이며 가족의 최대 벌금은 \$2085이다.

▶▶3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한국 유학생 4,129명으로 미국내 4위

이중 조기 유학생 1천여명으로 추정 가능
가족 포함 유학생 인구, 1만명 훨씬 하회
수학, 과학기술 분야 20%, 경영 뒤이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주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은 총 4천 129명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 이어 미국 내 4번째로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가 17일 발표한 서비스(SEVIS 유학생온라인감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한인 유학생은 81,577명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1.4% 증가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로 18,154명이었고, 뉴욕은 12,544명으로 두번째, 텍사스는 4,511로 세번째를 차지했다. 시카고 대학이 있는 일리노이는 3,911명으로 매사추세츠 뒤를 이었다.

이번 서비스 자료는 어학연수생뿐만 아니라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품질로 즐기세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할:
\$24.99

Tbo 플러미는 크리스마스과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대안으로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617.955.9112
617.254.4654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
기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Anne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시즌 최대의 세일

시작날짜

1.6.16

LAST CALL®

Neiman Marcus

COPLEY PLACE 617.536.3660 NATICK MALL 508.620.5700 NEIMANMARCUS.COM

특정 모피상품 정상가격에서 최고 50% 인하. 그외 다른 인하여에 적용안됨. 모피는 모든 매장에 해당 안됨, 또 사전 세일에 따라 달라지고, 원산지 라벨 표시되며, 재고상품이 포함될 수 있음. 세일은 매장과 온라인에서 선정된 상품과 총련에 한해 진행됨. 잠정적인 가격인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사전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음. 예외조치 취해질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판매원이나 NeimanMarcus.com 참조. 라스트 콜 온라인과 매장 상품은 포함되지 않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들 분야별 정리

▶▶1면에 이어서

세금보고 기간 연장= 새로운 세법에 따라 2016년 세금보고는 워싱턴 DC의 휴일과 겹치는 관계로 4월 18일까지로 연장된다. 매사추세츠와 메인 주 세금보고는 4월 18일 패트리어즈 데이와 겹치는 관계로 주 세금보고의 경우 4월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민법안〉

H-1B 와 L-1 비자 신청료=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 중 피고용인이 50명 이상이며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일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부과한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 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12월 18일 서명한 개정안은 이들 추가 신청료를 각각 \$4,000 (H-1B) 와 \$4,500 (L-1) 로 인상했다. 이 추가 신청료는 최초 신청과 연장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이 H-1B 비자를 거의 독점적으로 신청하다시피 하는 테크분야의 거대 기업들의 신청자 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셜 시큐리티 법〉

연금 신청과 동시보류(File and suspend) = 내년 4월 29일까지 만기은퇴나이(만 66세) 이상인 사람까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과 동시보류” 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지난 11월 말에 타결된 예산 감축안에 의해 오는 5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방법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배우자로 먼저 신청(Restricted application)폐지 = 2016년 1월1일까지 만 62세가 되는 사람은 배우자연금을 신청, 수령하다가, 자신의 만기은퇴나이(66)가 되면 자신의 크레딧에 따른 연금으

로 바꿀 수 있다. 1월 2일부터 62세가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배우자연금을 먼저 신청 수령하는 전략(The restricted application or file as a spouse first strategy)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

SAT 시험 변화 = 내년 3월부터는 SAT시험제도가 바뀐다.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이미 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겠지만 혹 앞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할 학생들과 부모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만 정리한다.

▶Critical Reading, Math, Writing 2,400점 만점에서 Reading, Math 1,600점 만점으로 바뀐다. 에세이가 선택이지만 ACT의 경우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에세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지 선다형에서 4지 선다형으로 바뀌었고 틀린 것에 대한 감점이 없어진다.

▶Reading 에서 어려운 단어를 묻는 문장완성 부분이 없어지고 문장 내에서의 의미를 묻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문법 부분점수가 Reading에 포함된다.

▶Reading에 과학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이해, 판단, 분석력을 측정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과학부분 점수가 따로 제공됨)

▶수학에서는 삼각함수 부분이 추가되었고 데이터 분석력을 묻는 문제들이 포함되고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시험이 치러진다.

▶에세이는 일정 주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읽고 분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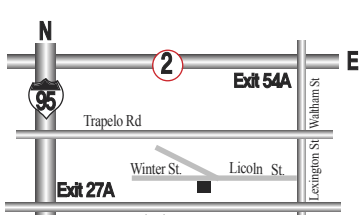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12, 2015

Class	Time	
PSAT / SAT Prep (New)	9:00 AM – 11:00 AM	Saturday
SAT Prep (Old)	1:00 PM – 3:00 PM	Saturday
PSAT /SAT Prep	3:30 PM – 5:3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2: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총영사관 단체장 초대 시무식 4일

보스톤한인회도 9일 신년하례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총영사관은 오는 1월 4일 오전 11시 30분 뉴튼소재 보스톤총영사

관에서 보스톤 소재 각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해 시무식을 갖는다. 시무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총영사관(617-641-283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보스톤 한인회는 1월 9일 오후 1시 보스톤 비컨힐 소재 서울식당

(156 Cambridge St, Boston, MA) 뉴잉글랜드지역 단체장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신년하례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인회(781-933-8855)에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아시안 부동산협회 갈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시안 부동산업 관련 전문직들의 모임인 미국아시안부동산협회(이하 AREA) 보스톤 지부는 오는 1월 20일 수요일 밤 오후 6시 제 4차 연례 갤러리를 갖는다.

퀸지소재 그레나잇링크스골프 클럽(Granite Links, 100 Quarry Hill Dr., Quincy, MA)에서 개최되는 이번 갤러리의 입장료는 비회원의 경우 \$188, 회원의 경우 \$99이다. 이번 갤러리에서는 디리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며, 한국계 도널드 최씨가 부회장

이 된다. 아시안 부동산업 관련 전문인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인 AREA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시안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상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조직됐다. 상당수의 한인 부동산관련 전문인들이 이 협회에서 활약중이다. AREA는 첫주택구입자 교육, 화재 대비 교육 등 커뮤니티를 위한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관한 문의는 마이린 박(EileenBostonRealEstate@gm-



ail.com, 617-935-3241)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무료 강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무료 세미나가 오는 1월 12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퀸지소재 카마라운지(Kama Lounge)에서 개최된다. 미 아시안 부동산인 협회

(AAREA)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이며 굳이 당장 집을 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구입에 대한 각종 상식을 미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소의 주소는 39 Cottage

avenue Quincy, MA 02169이다 행사에 관한 문의는 마이린 박(Eileen-BostonRealEstate@gmail.com, 617-935-3241)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TOTAL # OF ACTIVE STUDENTS

TOTAL # OF ACTIVE STUDENTS FROM SOUTH KOREA

	MALE	FEMALE	TOTAL
ALL F-1 & M-1	42,664	38,913	81,577
STEM F-1 & M-1	11,163	5,309	16,472

TOP STATES OF STUDY FOR F-1 & M-1 SOUTH KOREAN STUDENTS

STATE	MALE	FEMALE	TOTAL
CALIFORNIA	9,435	8,719	18,154
NEW YORK	5,522	7,022	12,544
TEXAS	2,546	1,965	4,511
MASSACHUSETTS	2,109	2,020	4,129
ILLINOIS	2,157	1,754	3,911

Source: Real-time SEVIS Data from November 5, 2015

미국내 4번째로 많은 한국 유학생이 유학중

▶▶1면에 이어서
조기 유학생(초, 중, 고)들 모두 포함한 자료로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조기유학생들의 구체적인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국제교육기관이 국무부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오픈도어(open-doors)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매사추세츠 주에는 어학연수생 이상의 수가 3074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서비스 자료와 오픈도어 자료를 비교하면 매사추세츠 주에 조기 유학 중인 초,중,고교생 또는 전문 자격증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남녀학생들이 거의 균등하다. 매사추세츠 주내에서 공부하는 남학생은 2,109명으로 여학생 2,020명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미국 내 유학생 구성비율로 볼 때 한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유학생들은 20%가 수학과과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며 약 14%가 경영, 마케팅을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16%는 경영을 여학생의 14%는 예술을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itor@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엄 총영사, 2세 뿌리 교육 노고 치하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 임원과 교장단 초청 만찬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임원과 교장단을 총영사관저로 초청하여 노고를 위로하며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광석 교육영사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엄성준 총영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인 후세들의 뿌리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협의회 임원 및 교장들께 감사한다” 며 “2세 뿌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 덧붙였다.

각 학교는 가나다 순으로 각 학교의 유익한 교육프로그램 및 현황 소개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이야기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총영사와 직접 소통했다.

한순용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회장은 각 학교 교장들에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행사가 있으면 협의회에 적극 알리고 초청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 회장은 또 2월 27일에 개최되는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행사를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교장단

은 김희봉 교장(로드아일랜드), 신영옥 교장(메인), 정에스터 교장(보스톤 감리교), 조은경 교장(그린랜드), 남일 교장(뉴잉글랜드), 장인숙 교장/명성진 교감(북부보스톤 한국학교), 김현주 교장(밀알), 박찬희 교장(퀸지), 서용학 교장(보스톤천주교), 이현경 교장(성요한 한국학교), 서효순 교장(우스터), 송미경 교감(보스톤장로교)이다. NAKS-NE협의회 한순용 회장, 윤미자 직전회장, 박지애 총무, 김희진 교육간사와 이광석 교육영사, 오진관 영사, 김범준 행정관, 나윤정 비서가 참석했다.

editor@bostonkorea.com



지난 17일 총영사관저에서 열린 만찬에 총영사 내외 및 영사, 총영사관 직원,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임원, 한국학교 교장단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

한국 티비 티보 신년 할인

1달 25불로 대폭 할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합법적인 콘텐츠만을 취급하는 인터넷 한국 방송 티보플레이가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을 신년으로 연장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25불에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한달 정규 가격은 \$39.99이다.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물론 TV N 케이블 방송 콘텐츠 그리고 최신 한국 영화 등의 콘텐츠를 초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티보 플레이는 LA에 본사를 두고 보스톤을 비롯한 전 미국 주요 도시에 한국 방송을 공급하고 있다.

티보 플레이의 주요 구성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골라보는 비디오 온디맨드(VOD) 방식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 경제TV 뉴스 등이 라이브로 제공되며 한번 틀면 종일 방송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자동 진행되는 채널 방식의 투데이 방송도 제공된다. 티보플레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속도 3메가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터넷 라우터와 TV가 가까이 있을수록 설치가 용이하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보스톤코리아 TV사업국(617-955-9112)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1연합뉴스 1마신협 회원사 1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대회 300여명 참가

2세들의 밝고 맑은 목소리로 가득찬 동요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이사장 윤경숙, 학부모회장 이현주)는 지난 19일 '성탄절 기념 제 15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내 동요대회' 를 개최했다.

독창, 중창 및 합창부문에 모두 60개 팀, 3백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음악교육부 김초은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동요대회는 아침 9시부터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솜사탕' 을 부른 흥부반 이예린 학생이 독창부문 대상인 학부모회장 상을, '장미꽃이야' 를 불렀던 고구려반 이혜린 학생은 공동대상으로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백린상을 수상했다. 조윤서-강은서 중창팀은 '함께 가면 좋은 길' 을 마치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얘기하듯 어우러지는 듯한 되 울림으로 불러 중창부문 대상인 학교 장상을 수상했다. 합창부문에서는 '아기다람쥐 포미' 를 멋지고 힘차게

불러준 흥부놀부반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성인생활영어반의 할머니-할아버지팀도 '독도는 우리땅' 을 불러 쟁쟁한 어린 참가자들을 제치고 중창부문 3등상을 수상했다.

이번 동요대회는 이중언어과정인 세종과정 가을반과 겨울반의 '축하해요 크리스마스' 공연으로 시작했고 시상식에서는 금도끼은도끼팀이 김초은 음악교육부 교사의 작품인 '나무야 나무야' 를 울동과 함께 멋지게 발표했다.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한순용 재미 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회장은 "성탄절을 맞이하며 2세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동요로 가득찬 행사를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지난 13-14회 전체대상 수상자 부모로서 이번 대회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최현구 학부모는 "심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지만 여섯 명의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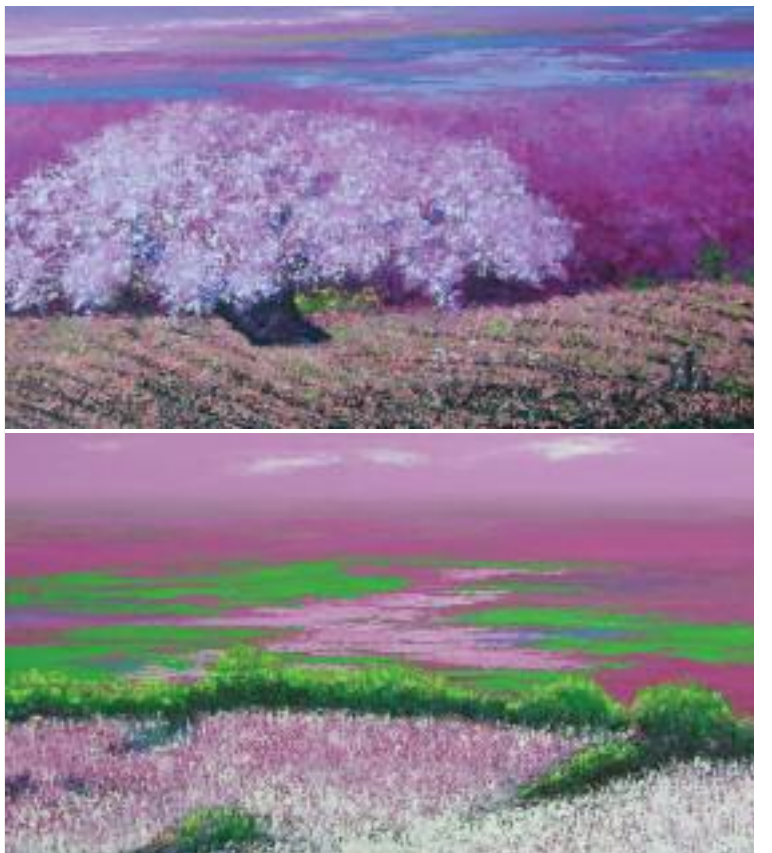
사위원들은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하고 "모두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며 심사평을 발표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제 15회 대회 수상자 및 관련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행사 DVD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주 겨울방학을 마치는 오는 1월 9일에 다시 수업을 시작한다.

오는 1월 30일 친구초청 설날잔치 및 문화행사 후 학기를 모두 마치고 오는 2월 27일부터 2016학년도 봄학기를 시작한다. 봄학기 등록은 12월 31일부터 시작되고 등록서류는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 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일부 과정에 한 해 선착순으로 약간 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문의는 남일 교장 (508) 523-5389, 이메일 ksneusa@verizon.net 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19일 개최된 제 15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동요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봄의 찬미, 2011, 유화, 97 X 162 cm (위), 아침해가 돋을때 III, 2011, 유화, 72.7 X 116.7 cm (아래) 신광성화백 작

신광성 화백 초대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양화가 신광성 화백의 초대전이 1월 12일부터 3월까지 브루클라인 메인 도서관 2층에서 열린다.

신광성화백은 전 미주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기에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연, 포용, 섭리를 미국 속에 용해시킨 서정적 작가다.

신 화백에 따르면 그의 작품소재는 보라빛 하늘, 봄의풍경, 푸른빛 가득한 바닷가, 복사꽃 만발한 과수원 등을 덧칠과 덮음의 화법 사용, 인생의 살아온 깊음을 화사한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으며, 나이프 터치를 사용하여 운율적인 맛을 둔 구는 화풍을 구사한다

그의 대표작 상당수가 이스턴 소재 스톤힐 칼리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 보스톤총영사관, 브락톤 메인 도서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신화백은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스톤힐칼리지에서 초청 연구교수로 재직했었다.

현재 신화백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전 미주 에피포도 (EPIPODO) 미술분과 협회장과 미술심사위원장 그리고 매사추세츠 사우스아트센터 갤러리 작가겸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I 2016 신년사



엄성준
주보스톤 총영사

존경하는 뉴잉글랜드 한인동포 여러분,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인 여러분들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경제 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통하여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통하여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서도록 변화되는 한해가 되기를 한인 동포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지난해 영사민원실 확장을 통하여 영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문화전시관과 한인도 서실을 운영하면서 한인 예술가들과 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에서 나타나듯이 2016년 미국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실업률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호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됩니다. 주보스톤 총영사관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보스톤 한인비즈니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6년 새해는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한단계 더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스톤 한국의 날 행사와 차세대 한인 지도자 심포지움과 같은 활동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인들이 더욱 단합해서 노력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갈 것을 희망합니다.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

보스톤 한인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인사회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해 전혀 다른 길을 걸어 보았습니다.

매사추세츠 변방에서 태권도만을 생각하고 태권도 교육에만 전념했던 저로서는 한인회장이라는 새로운 직분이 다소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걸어보는 길이였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인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서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인 가족 여러분! 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변화와 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며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발전이 없으면 미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생각을 변화시켜 나에게 새로운 길이 또 하나 열린다는 생각의 변화는 우리에게 발전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 열매는 우리에게 미래를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저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보스톤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한인 가족들과 함께 가는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 한해 한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갑시다. 지치고 힘든 이민생활 제가 이끄는 보스톤 한인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주저도 꺼리낌도 없이 무조건 함께 갑시다. “함께 걷고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는 보스톤 한인회” 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 갑시다. 함께 하는 새길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첫날
보스톤한인회 김경원 회장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차세대들이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자랄 수 있으며, 우리 동포사회가 발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뉴햄프셔한인회에서는 동포들의 교류를 위한 신년하례식, 한인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고국의 의미를 되살리는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식, 미국 주정부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감사장을 보내오는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주변에 한인동포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경제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힘든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힘껏 도와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의미있게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의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동포 여러분들께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새로 정비된 뉴햄프셔 한인회 웹사이트 (newhampshire.korean.net)를 방문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와 의견을 나누며, 재능기부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여러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차세대 한인동포들의 주류사회진출을 도움으로써 한인정착력 신장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류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 차세대와 동포사회와 모국을 위한 가치로운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배상

▶▶ 8면으로 계속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I 2016 신년사



조봉섭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참으로 바쁜 이민생활이지만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돌아보고 보다 활기있고 의미있는 새해를 꿈꾸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한해를 맞이 하고자 합니다.

1975년에 설립된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회원들의 친선도모와 복리향상, 교육과 우리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인회가 성공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은 그동안 한인 회원들의 헌신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한인회를 대표하여 그동안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인회는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와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인회의 행사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하루하루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되새기고, 또한 이웃 한인 동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한인회 웹사이트를 (www.rikorean.org) 더욱 더 활성화하여 한인 동포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한인회 운영과 활동사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웹사이트에 보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인 동포들의 권익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조언, 그리고 지적을 통하여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우리 한인 동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조봉섭 드림



한선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회장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를 맡은 한선우회장 새해인사드립니다.

민주평통 보스톤이 협의회로 승격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배출되었고 조국의 통일과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는 보스톤 주변 5개주에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40명의 자문위원들이 조국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한인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의 주역이 될 차세대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각종 강연회와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국 사무처와 함께 통일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육군사관학교 한인생도 30명과 함께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도 하고 서로 통일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미 주류사회에서 한인들을 대표할 훌륭한 차세대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3월에 오준 유엔대사 초청 강연회를 비롯한 많은 강연회와 기념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통 보스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인사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선우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뉴잉글랜드 교민 여러분께 병신년을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미년도 어느덧 지나가고 또 다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2016년을 맞이합니다. 교민님들 한분 한분 가정에 소망과 화평이 가득하시고 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5년을 회고해 보면 시민협회는 나름대로 꾸준한 활동으로 정치인턴과 정치후보자 모금행사, 무료 시민권 워크숍, 제 3회 차세대포럼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대선인 11/4/14일에 Massachusetts주에 Weld주지사 이후 수 년만에 Baker가 공화당 주지사로 당선되어 올 1월에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11/3/15에는 시민협회가 꾸준히 정치 모금을 후원해 준 보스톤 광역시 의원 Michelle Wu가 재선되었고, 캠브리지 시의원 Leland Cheung가 4선의 승리를 획득했습니다. State Representative, Tackey Chan 역시 3선의 자리를 보유했습니다.

올해 정치인턴 모금만찬은 성황리에 끝났고, 현재 유일하게 한인계 미국인으로 보스톤 Walsh 시장 내각에서 Chief Staff 인 다니엘 코 (Daniel Koh, Dr. Howard Koh의 아들)가 연사로서 젊은 세대를 복돋아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대학생, 고등학생 인턴들을 Patrick 주지사, Warren 상원의원, 캠브리지 시의원 Leland Cheung 사무실에 배치했으며 처음으로 State Representative, Tackey Chan & Boston City Council at Large, Michelle Wu가 시민협회 인턴들을 받아주었고, 인턴들은 다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끝내었습니다.

Harvard Law School에서 거행되었던 제 3회 차세대 포럼 또한 성공적인 행사였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4명의 저명 연사들과 진지한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스럽고 시민협회가 이 차세대들을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습니다. Judge - 판사 Ben Smith는 시민협회의 인턴이어서 더욱 더 의미가 있었고, Grace Lee - 현재 변호사로서 이 주에서 최고의 주정부 직위인 재무차관역임, State Rep. Tackey Chan, Dr. 황우성이 그들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시민협회는 계속해서 정치인턴 모금만찬 (4/9/16), 시민권취득 무료 워크숍 (8월 20일), 차세대 포럼 (11월) 등의 행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 해입니다. 시민협회의 사명 중의 하나인 교민들의 권익향상과 적극적인 정치적 협조와 선거 참여 운동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나의 투표 하나가 얼마나 중요

▶▶ 9면으로 계속



이경혜
한인 시민협회 회장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tural memb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I 2016 신년사

하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커뮤니티에 동참하여 "유권자 등록운동"을 실시할 것이고 특히 "도우미학생"들을 많이 이 운동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경해 드림



한순용
재미 한국학교 NE 협의회회장

붉은 원숭이의 해인 2016 병신년을 맞이하면서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 동물인 원숭이는 장수와 가족애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듯이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고 또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재미한국학교 뉴 잉글랜드 협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2015년에 계획했던 모든 행사를 어려움없이 치를 수 있었음에 이사회, 회장단 그리고 임원진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붉은 색은 밑에서 크게 일어나는 불길과 같아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력한 기운을 가졌으며, 강하게 뻗어 가는 기운과 열정을 상징하므로 2016년에도 저희 뉴 잉글랜드 협의회는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 그리고 역사 교육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5년에 재미한국학교 뉴 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에 후원해주신 보스톤 총영사관 및 각 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미한국학교 뉴 잉글랜드 협의회 회장 한순용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회장

새해 한인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스톤봉사회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방과 환등기를 차까지 들어다 드리지요"

오바마케어 설명회를 마치고 떠날 채비 중, 초면인 시니어 한 분이 거들어 주시겠다고 자청하십니다.

6년 전, 전화로 몇 차례 도움을 받았으나, 감사 표현도 못 했으며, 이번에 꼭 하시겠다고.

작은 일에 크나큰 격려와 보람을 안겨 주신 많은 분,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이었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WWW.BAASI.ORG 입니다.

오바마케어, 소셜시큐리티, 매스헬스, 메디케어 등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도 이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정부정책에 관한 새로운 소식도 게재할 것입니다. 자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제작을 위하여 우리 회원 세 분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5년여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메일을 한인에게 우송하신 다른 세분 회원의 꾸준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해를 거치면서 한인사회도 그 면모가 바뀌어 가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새해내내 보스톤 봉사회를 여러분께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보스톤봉사회장 윤희경 드림.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

2015년은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작곡가/지휘자인 레날드 번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에 이렇게 답합니다:

음악을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어느 때보다 더욱 정성드려서 할 것입니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며 보스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창립된지 네해로 접어 듭니다. 예술협회의 일은 어느 한두 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번스타인의 말대로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에 대한 우리 공동체 모두의 대답입니다. 이 일에 동참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일상생활의 쳇바퀴 같은 기계적인 삶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생각지 않았던 관용 등 언뜻언뜻 우리를 깜짝놀라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술협회의 이사, 임원 그리고 후원자 분들과 같이 일하며 이런 감동을 수없이 경험하였음에 참으로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동안 예술협회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힘입어 성장하며 매해 정기적인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해에는 2월 6일 보스톤 미술박물관 주최 제3회 구정축제를 비롯하여 브랜다이스 대학과 공동으로 준비하고있는 국악 레지던스 행사 및 정기적인 음악회와 제 4회 미술 전람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맞아 다시한번 진정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우리가 예술을 더욱 정성드려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쓸때 교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늘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이루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은주
국제선교회 보스톤 지회장

다사다난했던 을미(乙未)년을 보내고 병신(丙申)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국제선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한인사회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인해 국제선교회는 한미사회 간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공을 세울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에 끈임없는 호감과 사랑 가운데에서 많은 가르침 또한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1면으로 계속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손목, 팔꿈치, 무릎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목, 스카프스, 장염
- ④ 만성 편두통, 비만, 죽상동맥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습진, 건초, 비염, 천식, 비염, 기침
- ⑦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
- ⑧ 기타 시달려있으므로 치료받아야 할 것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추세초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I 2016 신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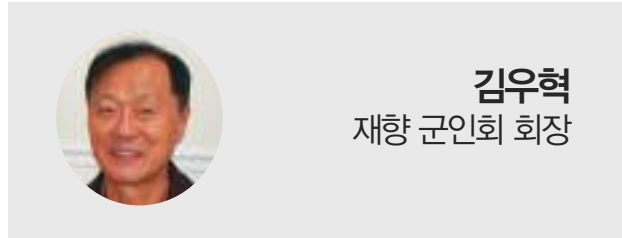
새해에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차고 넘치는 축복과 하시는 사업의 무궁한 번창이 있기를 국제선교회 임원일동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AICFM 국제선교회 보스톤 지회장 이은주 와 임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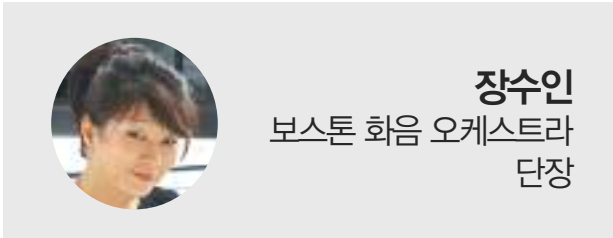
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안보를 바탕으로 이념 갈등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우리 향군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신년 새해에도 한인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음악회를 통한 자선모금으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어 따뜻했습니다. 한인오케스트라이기에 가능했고,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많은 단체와 후원자들의 성원이 있어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화음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는 3월19일 봄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인사회와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는 감동의 음악으로 우리 동포사회에 힘과 자부심을 더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로의 70년 역사를 꿈꿉니다. 그동안 이역만리 타국에서 뿌리내리며 씩씩하게 용감하게 온힘을 다해 발전해온 여러분과 칭찬과 격려, 무궁한 성원을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에도 화이팅!입니다.



김우혁
재향 군인회 회장



장수인
보스톤 화음 오케스트라
단장

2016년 병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새해에 향군가족과 한인동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항상 미소 짓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이념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갈등을 부추기는 무리들.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정치권인사. 민주노총의 난폭한 투쟁이나.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 중심축이 되어야 할 종교지도자들의 막말은 조국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는 우리 향군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 미국땅에서 살고 있지만 건강하고 발전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우리 향군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역전의 용사들이다. 우리가 할 일은 통일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 향군이 단합하여 평화로운 통일이 되도록 앞장서야 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보스톤의 한인여러분~ 새해 새아침, 또다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귀한 시간들에 오허려 숙연해집니다. 여러분의 각가정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길 온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2016년 원숭이해엔, 한인사회가 다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과 좋은 소식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한인사회, 감사하고 서로 돕는 하나된 마음의 한인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광복70주년과 분단70년의 큰의미를 갖고 다가온 지난해2015년은 그 큰역사적 의미를, 미래의 평화에의 염원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화음보스톤과 일 년에 걸친 세 번의 '한반도 시리즈 콘서트'를 한인사회와 나눌 수 있었던 뜻깊고도 보람있는 한 해였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한민족, 세계 속에 우뚝 선 한민족, 분단의 아픔에서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민족의 꿈을 여러분의 큰성원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또한 보스톤한인합창단과 함께한 평화콘서트와 시리아난민돕기



정제형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회장

미국이민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해는 어제와 같이 떠오르지만 햇빛은 어제의 햇빛이 아니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행복, 더 깊은 사랑 많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웃음 웃는 행복한 2016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병신년 희망차게 맞이합시다.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정제형

정관장 홍삼은 정관장만의 위급하는 '정관드림'에서 구입하여 안전합니다.

하루 2번 습관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항암효과
- ✓면역력증진 ✓혈액순환 개선
- ✓지방 함량을 예방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증정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국산 최고의 천연 보습농인비소오일

8년간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8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웨그먼스, 보스톤 지역 최고의 슈퍼마켓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월마트
 홀푸드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 우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웨그먼스 (Wegmans Food Markets, Inc.)가 보스톤 지역 최고의 슈퍼마켓으로 꼽혔다.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보스톤 컨슈머스 체크북 (Boston Consumers' Checkbook)에 따르면 가격과 품질을 고려했을 때 웨그먼스가 보스톤 지역 슈퍼마켓 랭킹 1위를 차지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웨그먼스는 지난해 매사추세츠 주 1호점을 뉴튼에서 오픈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에서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웨그먼스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체크북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웨그먼스의 품질을 최고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93%가 웨그먼스의 품질이 최고 수준(superior)이라고 답했다. 또한 웨그먼스의 가격은 사우스보다 평균 7%가 저렴하다고 체크북은 밝혔다. 체크북의 케빈 브래슬러 편집장은 "슈퍼마켓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웨그먼스가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독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체크북은 보스톤 지역 슈퍼마켓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육류, 공산품,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151개 식료품

을 선정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15일 까지 가격을 조사했다. 그리고 보스톤 컨슈머스 체크북 독자와 컨슈머 리포트 독자 6만 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슈퍼마켓의 순위를 매겼다. 체크북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슈퍼마켓은 월마트였고, 마켓 바스킷과 하나포드가 그 뒤를 이었다. 슈퍼마켓 중에서 판매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홀푸드였다. 그러나 품질 면에서는 월마트가 하위권에 위치했고, 반대로 홀푸드가 상위에 랭크되었다. 트레이더 조스는 대형 브랜드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슈퍼마켓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지만, 전반적인 가격은 스타트업이나 사우스보다 높다고 체크북은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웨그먼스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첫 눈폭풍이 몰아친 29일 아침 MBTA 버스 한 대가 눈 속에 갇혔다

MA주 첫 눈폭풍, 큰 사고 없이 지나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29일 갑자기 몰아친 눈폭풍으로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눈과 비가 함께 섞여 내린 올겨울 첫 눈폭풍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갔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첫 눈폭풍이 몰아친 29일에 십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매사추세츠 전역에 걸쳐 차량 소통이 느려지고 경미한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크리스마스 주간부터 이어진 방학 기간이라 학교들이 휴교 상태고, 연말을 맞아 휴가 기간을

가진 회사들도 많아 교통 혼잡은 심하지 않았다. MBTA 역시 이른 새벽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대중 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밝혔다. 첫 눈폭풍이 내린 날 매사추세츠 주에서 정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방 기상청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이번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히스, 하버힐, 루넨버그 지역으로 약 3인치 가량의 눈이 내렸다. 보스톤에는 눈이 비로 바뀌기 전까지 약 1인치의 눈이 내렸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개사도입자.
 (10년)에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용수업과 관련된(MBA)을 마치고 나면 BOS CONE-CAMBRIDGE 지역이 가장 팔리고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용수업과 실용수업. 10년 이상의 실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격에 집을 사입과 매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 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rengn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한마루, 사출, 실용수업, 침실과 베드룸이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BEDFORD 지역 단독주택

For Sale: \$599,000 3+ Beds, 2 Bath, 2238 sqft (Lot size: 1.3 acr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경관, 양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넘쳐나는 석유가 갑자기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이유

"공급과잉이 투자감축 야기, 결국 공급부족 귀결"
맥쿼리 "유가, 30불에서 100불로 순식간에 될 수도"

(서울=뉴스1) 장안나 기자 = 장기간 공급과잉에 시달려온 원유시장이 돌연 공급부족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기화된 저유가로 석유회사들이 투자를 대폭 감축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줄게 생길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글로벌 석유회사들의 투자감축 움직임이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원유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이다.

이탈리아 에너지그룹 에니(ENI)의 클라우디오 데스칼지 최고경영자(CEO)는 "원유업계 투자가 급감함에 따라 2~3년에 안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이것이 원유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유건설사인 리스타드는 올해 글로벌 탐사·생산 투자는 전년 대비

1700억달러(약200조)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20% 더 줄어든 셈이다. 리스타드는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50달러에 머물면 투자액은 다시 5분의 1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쉐브론과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메이저석유회사들은 내년 설비지출을 4분의 1 감축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BP와 토탈 등 유럽계들도 대규모 지출축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관련 전문 자문사인 튜터필 커링홀트 자료를 보면 현재 150개의 프로젝트가 연기되었다. 일일 1300만배럴에 해당하는 원유생산이 무기한 보류된 셈이다. 이는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전체 감축 규모의 20%는 원유추출 비용이 특히 높은 캐나다 오일샌드 유

전개발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걸프만과 아프리카의 심해유전 프로젝트와 북극해 프로젝트 역시 다수 연기되었다.

바클레이스의 석유담당 애널리스트 미스윈 마헤시는 "공급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기존 유전의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이 부족분을 채울 신규 프로젝트까지 줄 줄이 연기되는 처지"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유가 상승을 예상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브렌트유가 2020년까지 배럴당 8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맥쿼리는 한층 공격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언 라이트 유럽 석유·가스부문 대표는 "30달러이던 유가가 순식간에 100달러로까지 될 수 있다"며 "겁을 먹고 투자를 줄인 원유업체들이 일정 시점에 가서는 사업자들의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subway@news1.kr



British Petroleum (BP)



파리 테러 때 몰려든 구급차

미국인 절반 이상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안좋았다"

(뉴욕 AP=연합뉴스) = 미국인 과반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더 안 좋은 한해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AP 통신과 비영리법인인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전체적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쁘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 38%에서 늘어난 것이다.

올해가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10%에 그쳤고, 32%는 별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가 미국에 좋은 해라고 평가한 이들은 17%로 지난해의 30%보다 크게 줄었고, 37%는 미국에 올해가 작년보다 나빠진 한해라고 평가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가 좋았다고 대답한 이는 29%에 그쳤고, 21%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부분은 올해의 중요한 사건으로 샌버너디노와 파리 테러 같은 대량 살상 총

격을 꼽았다. 개별 사건을 놓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지'를 묻는 질문에서 샌버너디노나 찰스턴 등의 무차별 총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파리테러와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만행에 대해서는 각각 64%,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경찰 총격에 따른 흑인 사망으로 촉발된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였고, 이란 핵협상과 유럽 이민사태에 대해서는 각각 44%, 42%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중문화 부문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지역할만한 사건'이라고 꼽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최근 개봉한 스타워즈 신작(37%)과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코미디언 빌 코스비 사건(36%) 등이 그나마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미국인 1천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3일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3% 안팎이다. tsyang@yna.co.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COLDWELL BANKER
REALTY SERVICES

Kathy Lee

Cell: 781.354.1622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미국 좋은 보스톤 앞대 아파트, 콘도, 주택 전문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Fax 617.969.7912
Kathy.Lee@NEMoves.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국 원유업체 경영난 심화... 4분기에 9개업체 파산보호신청

(뉴욕=연합뉴스) 박성재 특파원 = 원유 가격의 약세가 지속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미국의 원유 생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업체들도 지출 삭감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델러스연방준비은행의 새로운 보고서를 인용해 올 4분기에 파산보호신청을 한 원유생산업체가 9개라고 24일 보도했다.

파산보호신청은 경영난 때문에 도산에 직면한 기업이 회생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구조요청으로, 한 분기에 9개 원유 생산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은 2008년 시작된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처음이다.

미국 원유업체의 파산보호신청 증가는 원유 가격 추락 때문에 미국 원유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는 유럽, 중국 등의 저성장과 맞물려 공급 과잉이 심화하면서 약세가 1년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번 주에 9% 오르긴 했지만, 배럴당 가격이 38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원유 가격 추락에도 석유수출기구(OPEC)는 생산량을 줄이기는커녕 자체 할당량보다 많은 현재의 산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생산단가가 높은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업체들을 고사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 원유생산업체의 파산보호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OPEC의 의도대로 고비용-저유가 구조를 견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델러스연방준비은행은 보고서에서 지난 14개월 동안 7만 명, 전체 원유업계 근로자의 14.5%가 일자리를 잃는 등 노동시장에도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미국 원유생산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생산량은 서서히 줄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이

란이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하고 OPEC은 현재 산유량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 수요 대비 공급 초과량이 하루 6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며 2017년까지는 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유가 약세와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노코필립스가 내년 지출 규모를 2014년 대비 55%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라톤오일도 60% 삭감하는 등 8개 에너지 업체가 대규모 경비 축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sungje@yna.co.kr



미국 노스 다코타주에 있는 오일 채굴장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중기적인 세계경제 전망도 "구름 잔뜩 끼어"

"연준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평가

(프랑크푸르트 AFP=연합뉴스)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30일 내년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기고한 글에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은 실망스럽고 울퉁불퉁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충격, 많은 국가에서의 재정시스템 취약 등을 내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재료로 꼽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해 '돈 풀기' 시대의 종언을 고한 것과 관련해

서 라가르드 총재는 "연준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의 정상화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며 많은 국가가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강세로) 달러 표시 외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상과 강달러는 기업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정부와 은행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고 봤다.

라가르드 총재는 "낮은 생산성과 고령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라며 "중기 전망을 보면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어느 애널의 고집스러운 전망... "미 금리 도로 내린다"

(로이터=뉴스1) 장안나 기자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도로 내릴 것이라며 12월 인상결정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미즈호 증권사의 미국담당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

스티븐 리치우토 미즈호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올리더라도 일관성 없는 성장세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치 이하로 머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의 첫 금리인상 시점을 대다수 전문가들보다 6개월 늦은 2016년 중반으로 전망해온 인물이다.

리치우토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으로 더 거센 역풍이 닥칠 위험을 감안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이달 금

리인상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준이 단기간 안에 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고 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후 도로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수요 위축과 지출증가세 둔화로 제조업경기가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연준은 내년 3월이나 4월께 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2차 금리인상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리치우토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몇 년 전 유럽중앙은행(ECB)의 사례를 재연할 수 있다고 본다. ECB는 지난 2011년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한 뒤 재정위기가 장기화하자 금리를 다시 낮춘 바 있다.

subway@news1.kr



미국 연방준비제도

싸이 '대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3주 연속 1위

뮤비는 8천만 뷰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의 '대디'(DADDY)가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3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일 발매된 '대디'는 빌보드의 19일자, 26일자에 이어 1월 2일

자 '월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잇달아 1위를 지켰다. 또 이 차트에는 2012년 발표한 히트곡 '강남스타일'도 3위에 랭크돼 글로벌한 인기를 보여줬다.

앞서 '대디'는 19일자 빌보드에서 싱글차트인 '핫 100'에 97위로 첫 진입해 싸이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4곡 연속 빌보드 메인차트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이 곡은 '핫 100'의 순위권 밖으로 밀렸지만 세부 차트인 '월드 디지털 송'에서 정상을 지키며 인기를 이어갔다.

'대디'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도 꾸준히 상승해 30일 오후 기준 8천65만 건을 돌파했다.

한편, 싸이는 지난 24~26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올나잇 스탠드 2015-공연의 갯싸이' 공연을 펼쳐 총 5만 관객을 모았다.

mimi@yna.co.kr



아델의 앨범은 빌보드의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5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식지 않는 '아델 열풍'...3집 판매량 700만장 돌파

5주차 판매량을 합한 전체 판매량은 713만5천장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팝스타 아델의 정규 3집 '25' 판매량이 700만 장을 넘어섰다.

29일 미국 음원 판매 집계 기관 닐슨뮤직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인 아델의 '25' 발매 5주차 판매량은 116만장에 달했다.

'25'는 첫 주에 338만 장이 팔려 나간 데 이어 2주차에 111만장, 3주차에 69만5천장, 4주차에 79만장이 판매됐다. 5주차 판매량을 합한 전

체 판매량은 713만5천장에 달한다.

현재 아델의 앨범은 빌보드의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5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타이틀 곡 '헬로'(Hello)는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9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델은 2011년 2집 '21' 수록곡 '롤링 인 더 딥'(Rolling in the Deep)으로 빌보드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에 오른 바 있다.

hye1@yna.co.kr

스타워즈' 제작사 갑질(?)...영화관들 "그래도 행복"

디즈니, 입장료 판매수익 6:4...관례보다 더 많이 챙겨 영화관들, 팝콘 매출 등 부대수익 '쏟아내' 순순히 동의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개봉 12일만에 10억달러 매출을 달성하며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매출 가운데 절반을 약간 넘는 5억5000만달러는 미국 내에서, 나머지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영화관 티켓 판매 수입은 제작사와 영화관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스타워즈의 경우 개봉 전부터 일찌감치 흥행 돌풍이 예상돼 왔다. 그래서 제작사인 디즈니는 수익 배분 비율을 관례와 좀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

29일 CNBC 보도에 따르면, B.라일 리앤드컴퍼니의 에릭 울드 연구원은 "제작사는 통상 티켓 판매 1달러당 55센트의 이익을 가져간다"며 "2008년부터 평균 수익은 53센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스타워즈의 경우는 디즈니가 티켓 판매 수입의 6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영화관이 관례에 비해 덜 배분받는다

는 의미다. 제작사와 영화관의 수익 분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개봉 초기에는 제작사가 더 많은 수익을 분배받고 이후에는 영화관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러한 관행은 개봉 첫 주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제작사들이 광고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굳어졌다.

그런데 영화 개봉 전부터 흥행이 점쳐지면 디즈니는 영화관과 협상에 나선다. 그래서 영화관들은 디즈니의 요구에 따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티켓 마진을 낮춰 받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진이 낮더라도 스타워즈의 흥행 돌풍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영화관들의 수익도 증대됐다.

극장의 주요 수입은 팝콘과 음료 판매에서 발생한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리갈시네마의 3분기 수익 중 30%

가 팝콘 및 음료판매에서 발생했을 정도이다.

울드 연구원은 "대형 블록버스터는 극장 출입 고객을 늘리기 때문에 영화관들은 낮은 티켓 마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상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영화관이 얻는 추가 수익은 또 있다. "스타워즈"로 인해 평소 발걸이 뜬하던 사람들이 영화관에 간다는 것이다. 6년전 "아바타"의 흥행 이후 3~6개월간 영화관 방문객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C나 리갈시네마의 최근 주가는 10%이상 떨어졌다. 울드 연구원은 주가 하락의 이유를 "영화관의 마진 깎아먹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티켓 마진의 감소폭은 "스타워즈" 컨셉의 스낵 판매 등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스오피스 순위는 수익과 직결되지 않는다. 박스오피스 매출은 광고비나 제작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는 영화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고, 미국인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지표임에 틀림없다.

yung@news1.kr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포스터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AN. 1ST - JAN. 7TH, 2016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and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Hmart 2016년 새해맞이 세일전

HAPPY NEW YEAR

Celebrate the YEAR of RED MONKEY

We wish you THE HAPPIEST New Year EVER with H-MART

2016 is going to be A SPECIAL YEAR. We will enjoy, laugh, love and eat healthy. And we have everything you need at H-MART.

붉은 원숭이띠의 해, 2016년에도 H마트와 함께 행복이 가득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2015년은 3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H마트는 2016년에도 한국의 맛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나갈 것이며,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으로 고객님들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한아름 받으세요!

HAPPY NEW YEAR! 2016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GROCERIES AND MORE.

H5STUDIO

BIG SALE SPECIAL

- Kyong Gi Med. Grain Rice 경기미 15 lbs. **\$9.99**
- KOKUHO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9.99**
- POLAND SPRING Water 폴란드 스프링 물 500mL x 24btl/pkg. **\$3.99**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box **\$24.99**
-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29**
- Ginger 생강 lb. **\$1.49**
- Garlic 마늘 5pcs/pkg. **2\$1.99**
- MANNA I Love Tofu 아이 러브 두부 All Varieties/14oz. **\$0.88**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Pork Butt Chunk 수육용 돼지 생육살 lb. **\$4.99**
- Whole Chicken 통닭 **\$1.49**
- Beef Flank Steak 양지머리 lb. **\$7.99**
-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lb. **\$7.99**
- Sliced Pork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목살 불고기 lb. **\$5.99**
-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스테이크 lb. **\$6.99**

-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lb. **\$7.99**
- Sliced Pork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목살 불고기 lb. **\$5.99**
- Marinated Tenderiz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별집 등심스테이크 lb. **\$6.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프리미엄 영광굴비 10 lbs./pkg. **\$61.99**
- Korean Jeju Hairtail Fish 제주 은갈치 lb. **\$12.99**
- 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 **\$3.99**
- TONGTONGBAY Dried Whitebait 통통배 방어포 2.5oz. **\$6.99**
- TONGYOUNG Cutted Swimming Crab 통영 손질된 꽃게 22lbs/pkg. **\$11.99**
- Beltfish 생갈치 lb. **\$4.99**

Known Hello! Hello! Mellow Pie

INTRODUCING MELLOW PIE WITH FLUFFY MARSHMALLOWS AND RICH CHOCOLATE?

- CJ 햇반 CJ Cooked White Rice 7.4oz. x 12ea./box **\$14.99**
- HAIOREUM Dried Seaweed 해오름 실미역 3oz. **\$2.99**
-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
- JFC Tomoshiraga Somen JFC 토모시라가 소면 48oz. **\$5.99**

- SHIRAKIKU Sanukiya Udon 시라키쿠 사누키야 우동 2.75 lbs. **\$3.99**
- YOODONG Canned Bai Top Shell 유동 자연산 굴뱅이 통조림 14.1oz. **\$6.99**
- SAMYANG Spicy Fried Chicken Noodle 삼양 불닭볶음면 4.9oz. x 5ea./pkg. **\$5.99**
- FOOD BASKET Fish Ball 푸드바스켓 어묵 All Varieties/6-7oz. ea./for **2\$5.00**

- BONNE MAMAN Jam 본 마만 잼 All Varieties/13oz. **\$2.99**
- MORNING Q Elec. Pad 모닝큐 전기요 1350 x 1800mm **\$46.99**
- YOBO HOME Shabu Shabu Hot Pot 여보홈 샤브샤브 핫팟 **\$8.99**
- 검정 장 우산 Black Long Umbrella **\$6.99**

국민정서 · 여론 넘어야 할 위안부합의, 출구전략 안 보이네

외교차관 할머니 설득 역부족...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의견도 아베 추가 사죄 의지 없는 상황서 뾰족한 수 없어 '고심'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한·일간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지만, 피해자들과 피해자 관련단체, 여론의 거센 반발로 설득이 만만치않아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28일 타결된 합의는 기존의 사사예안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위안부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점과 '불가역적'이란 단서를 달아 둔 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미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시한에 쫓기듯 연말에 타결된 합의가 국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 교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데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타결 다음날인 29일 외교 차관들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직접 보내 할머니들을 포함한 대국민 반발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정부가 그간 위안부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단체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합의안 자체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관들의 방문이 할머니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머니들은 "몰래 합의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에서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과 한가지다" "정부끼리 한 것은 인정 못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관보다 높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합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합의에 직접 참여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할머니들을 찾아뵙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할머니를 직접 만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통령 앞에서 비판을 쏟아내면 이번 합의가 실패한 합

의라는 인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국내여론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사죄 발표를 하거나 사죄서한을 할머니께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할머니분들이나 피해자 단체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명예와 존엄

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런 감성적인 일본측의 어프로치(접근)가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사죄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며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다.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

로 인해 일본에서 쏟아지는 부정확한 보도가 우리 국민 감정을 더욱 자극할 전망이다.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해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greenaomi@news1.kr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9일 경기도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협상 결과를 설명한 후 나오고 있다

커지는 '위안부 후폭풍'...한일 '소녀상 · 유네스코 등재' 진실공방

(서울=뉴스1) 김지훈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안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이에 대해 양국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30일 양국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타결된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소녀상의 철거문제다. 위안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 정부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소녀상 철거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안 문구를 최종 조율하면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관련 단체와 대응 방향을 협의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내용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두 나라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들을 통해 보도됐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여론전에 돌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공동기자회견이 있은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적절히 이전해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의 발언이 국내 여론을 의식한 기대감의 표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일축하는 모습이다. 정부 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들은 자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합의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문안 발표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외무상이 "한국이 신청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리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그것을 집어넣겠느냐"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서 정부의 책임 통감과 반성

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상 타결 후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자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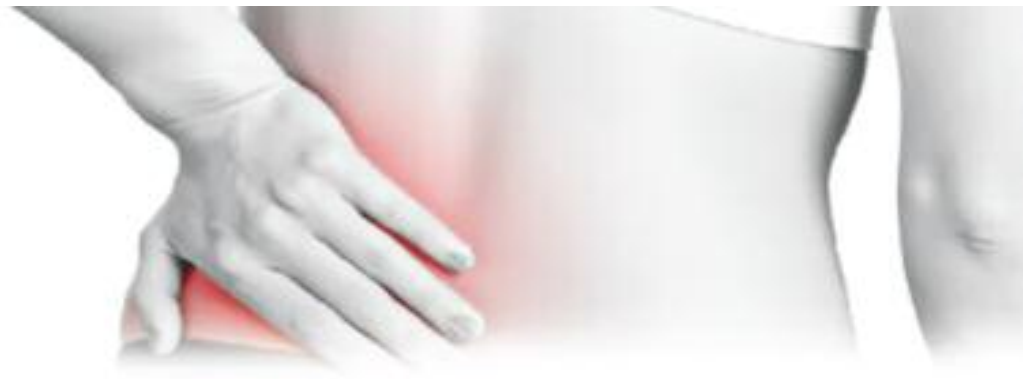
본 측에서도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 세력을 잘 설득하길 바라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언행들이 없길 바란다"며 "중요한 것은 합의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한일 당국이 위안부 협상 발표를 한지 이틀만에 양측간 진실공방이 커지면서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jikime@newsis.com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문에 대해 "굴욕이다, 즉각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지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나,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뿐"이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해결책이란,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따름"이라는 지적이다. "고노 담화로부터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 없는 내용에도, 단지 10억엔이라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정부는 독단적으로 협의를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정부가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불완전한 사죄와 반성을 추궁할 여지마저 제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사죄와 반성의 참의미를 외면한 이번 합의문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며 지켜 온 국민들의 자존을 더럽히지 말라"고 외쳤다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을 참지마세요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취급보험> 학생보험, 여행자보험, 개인보험PPO, 상해보험



원장: 윤창
Dr.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버드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클리닉 원장
네지니아 침구병원 원장
보스톤 노스어스틴 물리치료학 박사

Dr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LEE CHIROPRACTIC

부륙라인 척추신경 센터

“척추를 바로 잡자!”

원장: 이은혜
Dr.Eunheey Lee, DC

저희는 척추신경 전문병원으로,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기쁨의 웃음을 선물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와 철학이며, 환자가 어린 분들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교정 <취급보험> 학생보험, 여행자보험, 교통사고 보험, 일반보험PPO

부륙라인 척추신경 센터 LEE CHIROPRACTIC

www.DrLeeChiro9.COM TEL: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이용수 할머니 "끝까지 싸워야"...수요집회 1000명 운집

"정부가 우리를 두번, 세번 죽여"...마음대로 타결한 정부 비난

(서울=뉴스1) 차윤주, 최현규, 정혜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회 수요집회에 나와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어제 외교부 차관이 (쉘터에) 왔는데 떡살을 잡고 흔들려다 참았다"며 "할머니들에게 이런 협상이 있다고 전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마음대로 '타결했다'고 입을 벌리고 보도를 했다"고 정부가 협상 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점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 조선의 딸로 고품계 자란 것밖에 죄가 없는데 위안부를 만든 일본은 그 죄도 모르고 아직까지 오리발을 내민다. 정부가 우리를 두번 세번 죽이려 한다"고 울먹였다.

이 할머니는 "너무 분하고 서럽지만 오늘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보니 외롭지 않다"며 "지금부터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늘에 간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매주 수요일 정오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여는 수요집회는 이날 평소보다 다섯배 많은 1000여명(경찰추산 700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 할머니와 김원옥 할머니(87)는 28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지난 10월14일 열린 1200회 집회 이후 두달반만에 현장에 나왔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일본이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감추려해도 여기 있는 우리는 평화의 목소리를 내질러왔다"며 "20년전 일본은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냈던 국제시민사회와 세계적인 행동을 함께 할 연대체를 만들겠다"며 "평화비를 전국에

세워 다시는 우리 땅에 아픔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엔 올해 5월28일 별세한 이효순 할머니(90)의 아들도 나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90평생을 사셨어도 16살 이후의 평생은 가슴 속 응어리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셨다. 죽지못해 살아왔는데 나를 잊지말고 내 원한이 풀릴 때까지 싸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싸워서 이길게요"라는 다짐에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샘 평화나비네트워킹 대표는 "이번 타결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가해자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배상하고 사죄할 때까지 역사의 정의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집회는 지난 28일 정부 협상 결과에 항의하고,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를 기리기 위해 9명의 할머니들의 추모제로 진행됐다.

참석한 할머니와 시민들은 올해 돌아가신 9명의 할머니 사진을 모신 곳에 헌화했다.

이화여고 합창단 학생 20명이 '벗이여 해방이 온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

아'를 부르고 "할머니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두손을 입에 모아 대사관을 향해 평화의 합성을 질렀다.

이화여고 학생 이정은(17·여)양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소녀상을 지운다니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들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협의결과에 속상하다"고 말했다.

수요집회에 처음 참여하기 위해 이른 아침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유형선(31)씨는 정부의 협상결과 주요 쟁점

을 적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유씨는 "소녀상 이전문제나 할머니들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등 문제가 많은 합의"라며 "원래는 인터넷에서 기사에 댓글을 달고 정보공유를 하는 정도였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왔다"고 했다.

한 남성은 소녀상 옆에 '이 소녀상이 있는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옮길 수 없는(불가역적) 장소입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었다. chacha@news1.kr



30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2015년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원옥,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 될지 하루가 지난 2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놓인 위안부 소녀상이 노란 털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있다

국민 66% "일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반대"

모든 지역·연령·지지정당·이념성향서 이전 반대
대구·경북, 보수층, 여 지지층, 고령층 찬성 많아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응답자의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9.3%에 불과했고 '잘 모른다'는 14.4%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과 수도권에서는 반대 의견이

70%를 넘었고 광주·전라와 부산·경남·울산에서도 반대 의견이 60%를 상회했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의견이 23.5%, 반대가 49.5%로 찬성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20대(86.8%), 30대(76.8%), 40대(68.8%), 50대(59.9%), 60대 이상(45.1%)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9.7%, 정의당 지지층은 77.0%로 80%에 육박했고,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성 32.9%, 반대 49.1%로 다른 정당

지지층에 비해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5.2%, 반대 81.5%)과 중도층(16.5%, 75.6%)에서는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보수층은 찬성 33.2%, 반대 50.3%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다.

birakoca@news1.kr

사상 초유 '선거구 무효' 현실로...미리 본 혼란과 대책은

여야 이견 커 '연내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중앙선관위 일단 예비후보 선거운동 잠정 허용키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간 비례 축소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안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시한으로 정한 올해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현행 선거구 무효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246곳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등록된 예비후보의 등록도 무효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줄 지역구 및 비례 의석 비율 등을 포함한 선거구획정기준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아 선거구획정기준안 처리는 불발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자정을 기해 선거구 무효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 현행 기준(의원정수 300석, 지역구 246석)대로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라 획정위에서 작성될 선거구획정안은 농어촌 지역구의 상당수 축소가 불가피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공산이 커 자칫 선거구 무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ayunlove@news1.kr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인사를 나누는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의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Mon-Sat: 9:30AM-7:30PM
Sun: Closed

617.515.6010 | 1815 Mass Ave, Cambridge, MA 02140

'더민주' 의원들 탈당은 소수, 문 정면승부 계속 유효할까

내달 3일부터 현역의원 탈당 재개될 듯 인재영입 등 자신감 가진 문, 입장 고수 대치 누그러질까...문·이 여사 만남 주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탈당이 가속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내놓은 '정면승부 카드'가 어느 정도 유효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이어지던 현역의원 탈당은 28일 최재천·권은희 의원을 끝으로 주춤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 대표가 상황은 낙관하기엔 이르다. 먼저 새해 1월 10일을 전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들인 동교동계의 탈당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 3일부터는 현역의원들의 탈당이 재개될 듯하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 중 탈당 인사가 나오면서 이에 동조하는 순차적 탈당도 점쳐진다.

지난 28일 탈당 당시 자신의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던 권은희 의원 또한 새

해 벽두에 행선지를 정한다. 권 의원은 30일 "천정배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맞지만, 국회의원회에 합류하지는 아직 결정 못했다"고 말했다.

정가에선 서울·수도권 지역인사들이 호남인사들에 앞서 소위 '선도탈당'을 하는 이유를 두고 '탈당파=호남(탈당파=호남)'이라는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향우회 현직 임원 20여명은 이날 더민주에서 집단탈당한 후 국회의원회에 합류했다.

이용훈 전국호남향우회총회장 등 임원들은 "고향산천을 지키고 있는 부모형제들의 뜻을 존중해 통합 수권야당 건설에 선봉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호남 탈당의 물꼬가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표는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정면승부 카드'를 고수하고 있다.

호남·비주류 의원들의 즉각 퇴진

공세 속에서 '마이웨이'를 걸어온 문 대표는 탈당으로 얼룩진 당 수습을 위해 조기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수용하는 한편 자신의 거취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자 안 의원을 비롯한 신당파들은 '각자의 파이'를 넓히기 위해 서로를 향한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문 대표의 더민주를 제외한 통합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더민주가 고립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더 이상 '의미 있는 탈당'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총선 전 신당파들과의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고 김근태 전 의원의 4주기 추모식에서 안 의원을 만난 후 취재진들로부터 "어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 길게 보면 같이 가야 할 사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권통합까지 내다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표 측은 탈당파들이 대중들에게 어필할 신선함이 없는 가운데 유의미한 탈당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또 문 대표는 최근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표창원 범법과학연구소장을 인재로 영입하는 등 행보에 힘이 들어간 상태다.

친문(親문재인)·주류 측 인사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동교동계 핵심인사인 권노갑 상임고문과의 회동 사실을 전하면서 "알려진 것처럼 탈당을 결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표와 호남·비주류 간 대치 속

내달 1일 문 대표와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간 만남이 이같은 상황을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내 주류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살아 생전 '통합'을 얘기해왔던 만큼 이 여사도 동일한 기조를 갖고 있다. 동교동계 등이 이에 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cho11757@news1.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표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안철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청동성당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4주기 추모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여 공천률 전쟁... '여론조사 국민-당원 비율' 뇌관 부상

1·2위 오차범위일 때 결선투표...가산점 중복 적용은 이견 진박 유리하게 vs. '공천학살 안돼'...해넘겨 마지막 담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내년 20대 총선 공천률 문제로 갈등이 잠복 중인 새누리당 내 논란의 초점이 결국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비율'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하)는 30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 무렵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천특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대로 일반국민 50 대 당원 50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일반국민 비율을 상향조정하자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기자들에 "50대 50 안과 일반국민 70 대 당원 30 안이 팽팽히 맞섰다"며 "그 사이에서 조정하자는 주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하려는 친박계와 일반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려는 비박계의 치열한 격론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내 공천 접전 지역일수록 당락이 달라질 수 있는 가산점제의 경우 이날 역시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가감점 비율은 이제까지 논의 결과와 비슷한 선

인 정치신인 20%, 여성 등 소수자 10%, 그리고 중도사퇴한 지자체장의 경우 20%의 감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년(40세 이하)이나 이공계에 대한 가산점 역시 이날 논의됐다고 황 사무총장은 전했다.

다만, 정치신인의 범위나 여성과 정치신인이 중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신인을 친박계 주장처럼 총선에 한 번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넓게 볼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조윤선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자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지냈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치신인이자 여성에 해당, 10~20%의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광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구·경북(TK) 지역에 출마 예정된 청와대 및 전직 정부 인사들 역시 정치신인에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1·2위 오차범위 접전일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차범위는 ±5%p 내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결선투표시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을 다시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에까지 가점을 주면 공천시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진다. 2·3위 후보가 연합해 1위 후보와 맞서면서 가점까지 얻으면 1위 후보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로 이어질 공산이 커 'TK 물갈이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갈이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데다 주류로서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인 친박계와, 주류에서 주도하는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비주류 비박계는 결선투표 가점 부여에 대한 입장 차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공천특위는 상향식 경선의 도구로 쓰일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서는 비용 및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하는 것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안심번호제의 기술적 문제 등을 들어 유선전화 조사방식의 보완 재적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공천특위는 해를 넘겨 1월3일 6차 회의를 열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공천률에 따라 20대 총선의 지형도가 바뀌는 만큼, 이날 공천률 논의는 친박-비박계간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될 전망이다.

krusty@news1.kr



손혜원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새 당명 '더불어민주당'을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당명 사용 가능"

원외 민주당 "표 얻기 위한 꼼수"...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새정치연합)은 29일 당명과 관련한 원외 민주당의 정당법 위반 주장에 "당명 등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 사용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명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당명 변경을 중앙선관위에 신청했고, 중앙선관위는 "당명 변경 수리돼, 변경된 당명(더불어민주당) 사용이 가

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원외 민주당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당명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가치 등을 담지 않는 단순 수식어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민주당'과의 혼동을 일으키는 유사당명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외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더불어민주당 사용 불허 요청을 하는 한편, 법원에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pej86@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나물,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5.8888
SeoulFoodBazaar.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2016년 1월3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배경은
Kalin Bae
617-981-1542
kbae@HammondRE.com



주윤희
Ilmi Joo
508-641-8924
ujoo@HammondRE.com



LEXINGTON
...\$ 2,999,900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간 \$2billion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부동산!
보스톤 글로벌지가 선정한 'Top Place to Work'에 뽑힌 유일한 부동산!
38년 전통의 보스톤을 대표하는 Hammond 부동산!
18개의 지점과 400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양푸안 더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u Boston Korean Church

<판공성사>
12/6일, 13일, 20일 주일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목) 8pm

<성탄절 행사 & 미사>
성탄 맞이 분당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12월 25일(금) 12:15pm
미사
12월 25일(금) 4pm

<송구영신 미사>
12월 31일(목) 9pm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금) 11:30 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www.standrew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권리와 기쁨의 터전이다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유치/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2M 영적성경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www.ganain.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책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685-0275, (978) 644-2404
www.bostonumc.org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텍서스 US 월드 링컨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전례 마땅한 삶을 영위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무덤에 새로 사망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질순, 온전, 진리, 사랑, 온전, 부활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교회 주일오후 12:30
속회교회 수-주일 속회일
워렌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상록교회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 절약 수 있습니다

www.xoomenergy.com
한국어 상담: 미션지킴이 / energy@xoom.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지귀 케이크
- 국산산 유기점心和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다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빛자루 교사폭행' 고교생들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이천=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수업 중 기간제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가한 A군(16) 등 학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학생 B(16)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3일 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빛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

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촬영된 영상을 재유포한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개인신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상털기'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 고등학교는 이날 관련 학생 6명에 대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young86@yna.co.kr



해당 고교, 선도위 개최해 징계수위 검토중



故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73세)

'김정은 외교 브레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한의 대남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지난 29일 사망했다. 향년 73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 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양건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양건 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 비서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장의위원회를 꾸렸다. 장의위원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맡았다.

김 비서의 시신은 평양시 보통강 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으며, 발인은 31일 오전 8시다.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 비서는 2007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으면서 대남 분야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대외 분야도 총괄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에서 국제부장을 거쳐 대남 비서를 담당하면서 대중국 외교를 관장했다.

그는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로 말미암은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도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비서의 사망으로 남북관계가 당장 큰 틀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화 이미지'가 강한 김 비서의 부재로 남북 간 세부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고, 불협화음이 누적되다 보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의 후임으로 대남 분야에서는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맹경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외 분야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부부장은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다.

김 비서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권력 암투에 의한 숙청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비서가 각종 이권에 특별히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과 은화한 성품에 비춰보면 위장 사고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김양건 비서의 성향이나 추모 분위기, 북한이 주요 인물 사망 시 사망 원인을 밝혀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는 위장이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이혼 의사 밝힌 최태원 회장... "어쩔 저리 당당할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SK 최태원 회장이 한 매체에 자신의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혀 화제다.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현재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혼외자식까지 가지게 됐다는 과거를 고백하게도 했다.

최 회장은 이 편지를 통해 부인 노소영 씨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만난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반면, 노소영씨는 한 재계 관계자를 통해 최 회장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29일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 관장이 '그동안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내 남편이 가장 상

처를 입었다'고 차분하게 심경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 관장은 혼외 자식을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족을 지키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보도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최 회장의 외도를 비난하고, 노소영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는 미국 뉴저지 출신 이혼녀인 김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29일 블로그 씨크리트오브코리아를 통해 최 회장의 내연녀 김씨에 대해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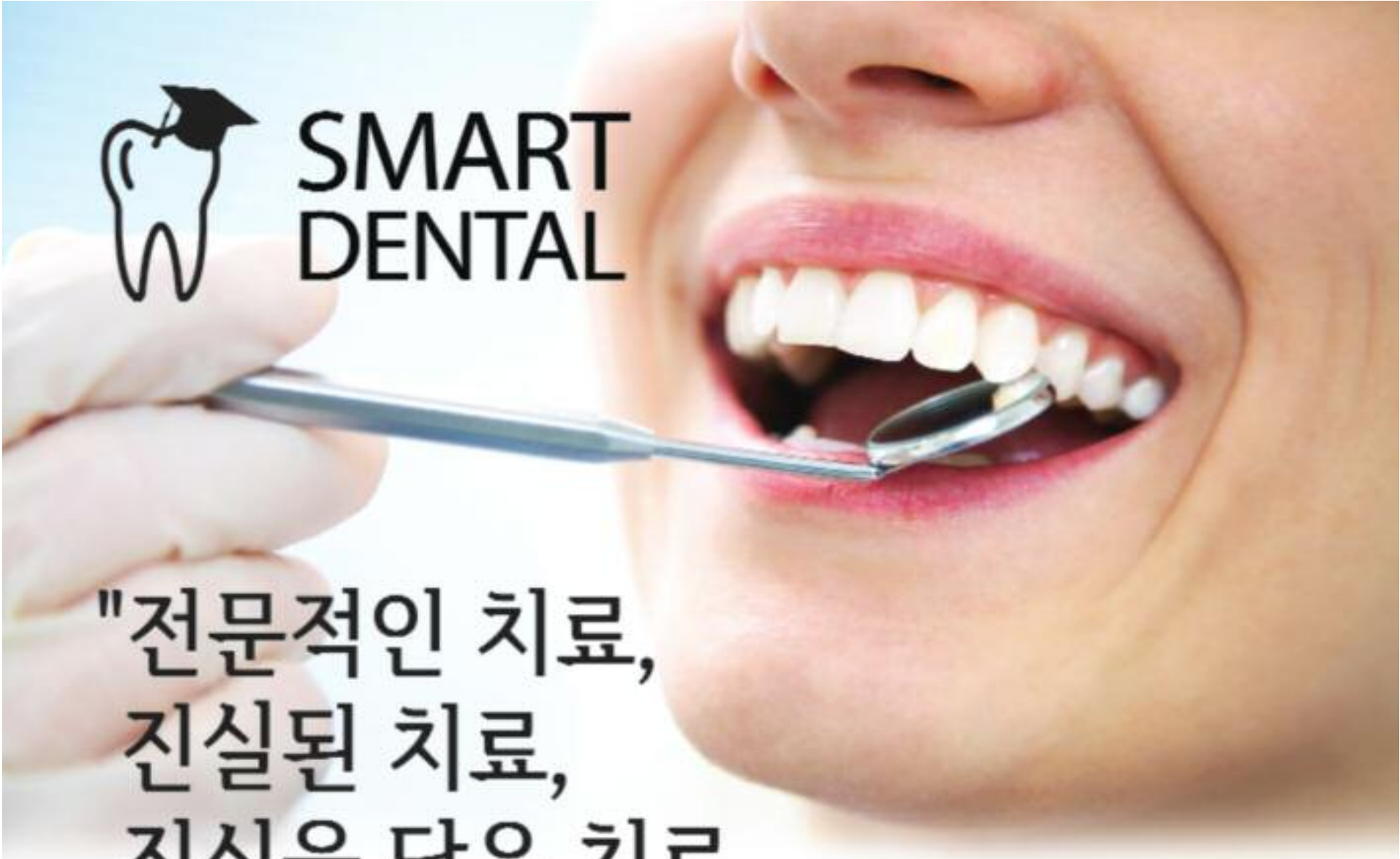
안씨에 따르면 김씨는 1975년 11월생이며 미국시민권자로 미국명 클로이를 쓴다.

안씨는 최 회장이 김씨와 사이에서 2010년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홍콩의 특급호텔에서 돌잔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potgus@news1.com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29,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416 sq.
New HVAC system 2015
New Roof 2007,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07



\$629,9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q.
새집보다 좋은 집
편리한 교통, 좋은 학교
이현주 401-935-330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q.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q.
Great Location!
조경한 주거환경, 좋은 학교
재스리 978-806-0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00 sq.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q.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q.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m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q.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q.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5,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q.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0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q.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q.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 리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 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키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 baths, 1740sq.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 baths, 1579sq.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500
Boston, MA
1 Bed, 1 bath, 709sq.
Jay Lee 781-654-5281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sq.
Gina Choi 978-866-3248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q.
Janice Lee 978-806-0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q.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다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2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915,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근처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sf. 180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Park 617-304-7001	Commerdal 커머셜 건물 투자 SJ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졸스톤, 뉴튼 센터 SJPark 617-304-7001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방문주차장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Q Kim 617-792-8615	Full Plant Drycleaner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 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Rong Tsai 617-792-8842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끗수층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NFL 플레이오프 진출 상위 시드 4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NFL 2015 정규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각 팀마다 1경기만을 앞둔 상황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결정되었다.

양대 컨퍼런스별 상위 시드 팀들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태다. 수퍼볼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각 컨퍼런스 상위 시드 팀들을 살펴보자.

AFC 2번 시드: Denver Broncos (11-4)

브롱코스는 주전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부상으로 시즌 후반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수퍼볼 우승의 꿈은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려워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백업 쿼터백 브록 오스웨일러가 의외로 선전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월요일에 먼데이 나잇 풋볼로 치러진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오스웨일러는 14점 차이를 뒤집고 브롱코스를 승리로 이끌었다. 브롱코스는 매닝 이후 팀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보유하고 되었다.

오스웨일러는 포켓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패스 역시 날카롭고 정확하다.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는 브롱코스는 오스웨일러의 활약으로 수퍼볼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 되었다.

NFC 2번 시드: Arizona Cardinals

(13-2) 시즌 후반 가장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팀은 카디널스다. 최근 9연승을 달리며 지구 우승과 함께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카디널스는 현재 NFL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꼽힌다.

지난 주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카디널스는 38 대 8로 크게 승리했다. 약한 팀으로 평가 받는 팀이 아닌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강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준 카디널스는 수퍼볼 우승 후보 1순위이다.

카디널스는 막강한 공격력과 함께 수비도 탄탄하여 약점이 없는 팀이다. 다만 상대팀의 쿼터백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유일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는 카디널스는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20점 이상 차이로 승리했다. 카디널스의 기세가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기대된다.

AFC 1번 시드: New England Patriots (12-3)

시즌 초반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던 패트리어츠는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패트리어츠는 그야말로 부상자



팬서스는 정규 시즌 전승에는 실패했지만 창단 이후 첫 수퍼볼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병동이다. 패트리어츠는 최근 5경기에서 3경기를 패했다. 패배한 3경기 중 2경기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한 경기지만, 시즌 초반의 패트리어츠와 플레이오프를 앞둔 패트리어츠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트리어츠에 위안이라면 수퍼볼 우승을 4번이나 일궈낸 빌 벨리치 감독과 쿼터백 탐 브래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줄리언 에들먼, 대니 아멘돌라

같은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NFC 1번 시드: Carolina Panthers (14-1)

풋볼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은 지난 주 팬서스의 경기에 어울리는 말이다. 올해 팬서스가 정규 시즌 전승을 달성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풋볼 팬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15주까지만 하더라도 팬서스가 무난하게 전승을 달성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 수 아래로 평가 받는 팔콘스를 상대로 팬서스는 패배를 기록했다. 특히 팬서스는 14주차 경기에서 이미 팔콘스를 38 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패배가 더욱 충격적이다.

팬서스가 비록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쿼터백 캠 뉴튼이 이끄는 팬서스는 여전히 강팀이다. 어쩌면 팬서스는 올해 창단 이후 첫 수퍼볼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해외축구] 이청용이 시작한 12월 EPL 골 소식, 손흥민이 마무리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손흥민(23·토트넘)이 지난 20일(이하 한국시간) 이청용(27·크리스탈 팰리스)으로부터 시작된 1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골 릴레이의 마무리를 짓는데 성공했다.

손흥민은 29일 영국 왓포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왓포드와의 2015-16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트리오 이청용, 기성용(26·스완지), 손흥민은 돌아가면서 3경기에서 연속 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골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지난 9월 20일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한 뒤 누구도 골을 넣지 못했다.

암울하게 2015년을 마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9년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선배 이청용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올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려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던 이청용은 지난 20일 스톡 시티와의 프리

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후반 36분 투입돼 7분 만에 그림 같은 중거리 슈트로 골을 터뜨렸다.

지난 2011년 4월 득점 후 4년 8개월 만에 나온 이청용의 골에 힘입어 크리스탈 팰리스는 스톡에 2-1 승리를 거뒀다.

이청용의 골에 이어 기성용이 27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상대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8골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던 기성용은 지난 27일 경기 전까지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다. 기성용이 잠잠한 동안 스완지는 7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부진에 빠졌고 개리 몽크 감독은 결국 경질됐다.

팀의 위기 상황에서 기성용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을 상대로 경기 시작 9분 만에 골을 성공시켰다. 팀 동료 앙헬 라멜라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잡지 못하자 이를 달려들어 오른발을 갖다 대 득점을 만들었다. 기성용의 골은 이날 나온 유일한 골이 되면서 스완지는 1-0으로 신승, 8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17, 18라운드에서 이청용, 기성용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23)

이 골 소식을 전한 가운데 손흥민이 19라운드에서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왓포드전을 벤치에서 시작했다. 최근 리그 5경기 연속 선발 제외였다. 주전 경쟁에서 뒤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후반 들어 상대 수비수 한 명이 퇴장 당하자 손흥

민은 후반 23분에 교체 투입됐다. 경기 투입 후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다가 후반 44분 오른쪽 측면에서 키에런 트리피어가 연결한 크로스를 뒤꿈치로 절묘하게 방향을 바꿔 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하면서 3위로 올라섰다. 경기 후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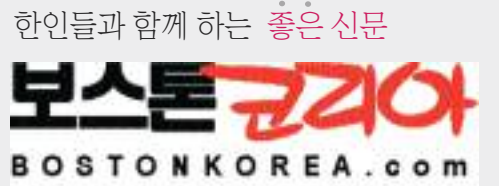
민이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에 승리를 안겼다"면서 손흥민을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이청용에서 시작해 기성용을 거쳐 손흥민까지 한국 선수들은 2015년 막판 팀에 승리를 가져오는 골을 성공시키면서 2016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yjra@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탈도도인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97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00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2362
에이치 앤 앨리교회	978-774-3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양구정동영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제멘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욱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9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셔츠/드라이클리닝 출세일합니다 (픽업/달리버리 가능) 뉴햄프셔/매사추세츠
T. 857-800-4628

뉴스타부동산 렉싱턴 사무실에서 Receptionist 로 일할 분을 구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본인 이력서를 이메일(jy.p617@hotmail.com)로 보내주세요.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은퇴관계로 일식 레스토랑 썬 가격에 매매합니다.
T. 978-494-2712

N[구인]
미디어 분야에 일할분을 찾습니다
경험자 환영합니다
T. 706-988-8041

N[셀폰가게 매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수 있는 비지니스,자리잡은 가게 알라바마 지역의 몽고메리
T. 334-819-4206, 334-201-4707

한인식당에서 웨이츄레스/웨이터 풀타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424-2872 (청기와)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N[구인]
헤어디자이너 구함
T. 470-299-6195

N[매매]
10년된윙가게
월매상 \$42,000, 렌트 월 \$1,250
창고에서 50분 거리
웨스트조지아에 있음
매매가 \$260,000
T. 678-387-743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2 bedrooms 아파트먼트 렌트, 크랜스턴 로드 아일랜드
T. 401-943-7178, 401-383-7311

N[구인]
조지아에서 1시간 30분 거리 외곽지역 한식주방보조 및 헬퍼구함. 숙식제공
T. 478-293-2311

N[매매]
Warner Robins 공군부대앞 미용실 매매 합니다
T. 478-213-3089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N[구인]
경력스시셰프 1명, 초보자 스시 셰프 1명
차타누가 테네시 지역
T. 423-316-1535

N[투자자 및 동업자 모집]
새롭게 시설을 개축하여 성업중인 식품점에서 사세 확장을 위해 정육 및 생선부를 함께 운영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합니다.
T. 256-683-0333 (Ask Mr. Shin)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1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최상수준의 **다국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서울메디케어	4,750	4,750	4,750	4,750
미국메디케어	10,000	0	10,000	10,000
한국메디케어	2,280	2,280	2,280	2,280

루트모발 이식센터

10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수많은 모발이식 전문수술실

특별 이벤트

일회	2회	3회	4회	5회
120만	120만	120만	120만	120만

새미치과 특별할인

30년 6642명 환자 100% 만족

치과 일반	120만
치과 일반	60만
치과 일반	20만

메디그 엑스레이 특별할인

엑스레이 일반	15만
엑스레이 일반	16만
엑스레이 일반	20만
엑스레이 일반	26만
엑스레이 일반	30만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검사외전' 황정민, 그가 연기하면 검사도 다르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황정민과 강동원의 최초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검사외전'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검사 재욱 역으로 변신한 황정민의 스틸을 공개했다.

내년 2월4일 개봉되는 영화 '검사외전'은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된 검사가 감옥에서 만난 전과 9범 꽃미남 사기꾼과 손잡고 누명을 벗으려는 내용의 범죄외전영화다.

영화 '신세계'의 의리파 보스, '국제시장'의 국민 아버지, '베테랑'의 행동파 광역수사대, '히말라야'의 휴먼원정대장까지. 때로는 관객의 동경심을 자극하고, 때로는 가슴 깊숙이 내재한 눈물을 자극했던 황정민이 '검사외전'에서 검사 변재욱 역으로 또 한 명의 잊을 수 없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황정민이 연기한 재욱은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로, 취조 도중 변사한 피의자의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후 감옥 안에서 복수를 위한 반격작전을 개

시한다. '검사외전'의 출발에 황정민이 대입되는 순간, 재욱은 어떤 캐릭터건 관객의 공감지수를 100%로 끌어 올리는 그만의 표현력과 함께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순식간에 그의 반격작전에 관객들을 동참시킨다.

검찰 동기 중 에이스, 가장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던 유능한 검사에서 하루 아침에 죄수로 전락하고, 살인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해 반격을 꾀하기까지. 황정민은 변재욱이라는 드라마틱한 캐릭터 자체에 내재한 반전의 스토리를 맛깔스럽게 펼쳐 보인다.

황정민은 "쉽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관객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업의식이 확고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 또 한번 관객의 실감 지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luem_chang@news1.kr

'나를 잊지 말아요', 미스터리 멜로

기억하는 여자와 기억을 잃은 남자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왜 여자는 알면서 모른척하고, 남자는 10년간의 기억을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나. 영화는 두 시간 동안 이를 쫓아가며 미스터리 멜로의 매력을 듬뿍 담아냈다.

영화는 실종신고를 하러 파출소를 찾은 연석원(정우성 분)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시계를 돌려 그의 행적을 더듬어나간다.

교통사고 후 석원은 기억을 잃었다. 전부는 아니고 지난 10년간의 기억만 갈로 도려낸듯 사라졌다. 어린 시절 친구는 기억하지만 10년 이내에 만난 사람,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우연히 진영(김하늘 분)을 마주하고,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그런데 진영은 느닷없이 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알 수 없는 감정의 이끌림으로 석원은 진영을 쫓지만 놓치고 만다. 그러나 얼마 후 진영이 석원의 앞에 불쑥 나타나고 그렇게 인연은 시작된다.

기억은 안 나지만 석원은 자신의 손목에 칼로 그어진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보며 과거가 순탄치 않았음을 직감한다. 아픈 건 진영도 마찬가지다. 진영은 약을 먹지 않으면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이지만 석원과 함께 있으면 평온을 찾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살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지만 진영의 주변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석원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종용한다.

이때부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하나씩 공개된다. 석원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관객의 궁금증도 함께 풀려나가는 구조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척 슬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과거의 비밀은 영화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겠다.)

비주역의 조화만으로도 화제가 된 정우성과 김하늘은 높은 집중력으로 캐릭터의 섬세한 감정을 짚어나간다. 선함과 악함, 혼란, 공포, 불안, 설렘, 애정까지 눈 속에 모두 담아내는 정우성의 내공은 가히 놀랍다. 김하늘이 정우성의 최고 강점으로 '눈빛'을 꼽은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김하늘 역시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몰입을 돕는다. 후반부 눈물이 폭발하는 장면에서는 보는 이들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애절하게 주인공의 심리를 꺼내보인다. 내년 결혼과 동시에 '멜로퀸'은 예약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는 중반까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후반부엔 슬픔이 차오르는 미스터리 멜로다.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 혹은 절절한 사랑을 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영화다. 내년 1월 7일 개봉.

uu84@news1.kr



'꽃청춘' 나영석 PD "이번 편 최고로 웃긴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나영석 PD가 가장 웃기는 시리즈가 될 것이라 예고했다.

나 PD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tvN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제작발표회에서 "만들어 보니 웃기기는 최고로 웃긴다"고 말했다.

나 PD는 "재밌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봐주면 그 안에 이 분들의 이야기가 녹아있다. 이불 덮고 보면서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테니 즐겁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방송을 앞두고 정상훈은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점은 어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여행이었던 것 같다. 넷이 너무 즐겁게 놀고 행복한 여유로운 휴가를 간 것 같다"며 행복한 여행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뭉친 조성석, 정우, 정상훈, 김하늘이 아이슬란드 극한의 추위 속에서 대자연과 신비로운 오로라를 찾아 떠난 열흘간의 여정을 담아낸다. 1월1일 밤 9시45분 첫방송. ppbn@news1.kr



'치인트' 이윤정 감독표 로맨스 온다 '섬세+감각적 연출'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이윤정 감독이 그려낸 '치인트'는 어떤 모습일까.

오는 1월4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월화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이하 치인트)은 달콤한 미소 뒤 위험한 본성을 숨긴 완벽 스펙남 유정(박해진 분)과 그의 본모습을 유일하게 꿰뚫어본 여대생 홍설(김고은 분)의 로맨스릴러를 담아낸 작품. 특히,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정평이 난 이윤정 감독이 작품의 수장으로 나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윤정 감독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커피프린스 1호점'은 일명 '커피(커피프린스의 줄임말) 열풍'을 일으키며 여심에 남심까지 모두 사로잡았다. 또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살려내는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은 수많은 팬들과 마니아를 탄생시켰다.

reddgreen35@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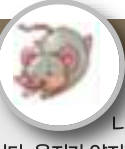


2016 병신년 운세

띠별로 보는 2016 병신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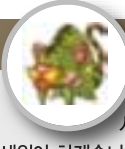
쥐띠 |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는

여러 면에서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려웠던 일들은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음식이 양자가 되니 방향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물을 얻은 물고기처럼 활약하는 해이니 직장인은 파격적인 승진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특별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큰 뜻을 이루고 집안이 화평하니 즐거운 웃음 속에 지내게 되겠습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



소띠 |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는 해

영여있던 매들이 풀리면서 애태우던 일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가면 명예와 지위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금전적인 이득도 따라주고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숨겨져 있었던 재능을 맘껏 발휘하게 되고 계도수정이 있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니 환자에게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밝은 앞날이 보이고 애정운이 좋으니 행복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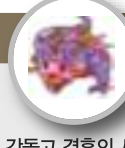
범띠 | 무리한 신규 사업 피해야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탕발림에 귀 기울이거나 쉽게 믿지 말고 자신의 주관을 확고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무슨 일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니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



토끼띠 |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은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많은 때로 이사나 이전, 직장의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바쁜 나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활동은 많이 하나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가끔적이면 참고 양보하면서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가을에는 기쁨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침착함과 조심성이 요구되는 때이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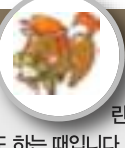
용띠 | 올해 결혼하면 운수 대통

에너지가 충만하고 실력 발휘를 맘껏 할 수 있으니 계획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핑크 빛 무드가 감돌고 결혼의 시기로 최상의 해입니다. 많은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운이 함께 하고 있으니 거칠 것이 없이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입니다.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직장인은 승진의 기회가 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



뱀띠 | 때 기다리고 건강에 신경 써야

때를 기다리면서 일본전전을 위해 일본후퇴 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해 합니다. 이성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특히 새로운 교제는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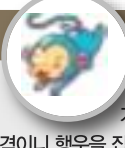
말띠 | 하고자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됩니다. 돈이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 도 하는 때입니다. 좋건 나쁘건 극적인 일이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생각을 냉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전합니다. 단, 분주하고 바빠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없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



양띠 |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단, 신용을 제일로 여기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 속에 품고 있던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가망이 없었던 곳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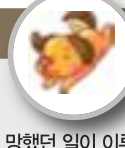
원숭이띠 | 황금 마차를 타게 되는 격이니

어렵던 난제를 매듭짓고 중단되거나 침체되었던 일에 환한 기운이 맴돕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가 황금 마차를 타게 되는 격이니 행운을 잡게 되고 심신이 편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으므로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 결과도 좋고 이득이 따를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



닭띠 | 노력한 열매 수확하는 해

새로운을 추구하는데 희망과 행운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기회가 다가오고 재물과 명예가 한 아름 들어옵니다. 전망이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 최고의 시기이고 사교적인 면에서도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수입과 수익 면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따르고 약간의 투자로도 큰 이익을 얻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



개띠 | 가정과 일터에서 상승기류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하던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위에 뜻이 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획기적인 사업도 연결되고 자신의 야망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저기 초대도 많이 받게 되고 명예와 인기를 얻는 좋은 해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



돼지띠 | 지출 줄이고 매사에 신중

변화를 주지 말고 하던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투자나 매매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씩씩이를 자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해하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노력한 성과가 더 영글어서 나중에 아주 값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

역학으로 본 2016 병원숭이띠 해 운세 와 전망

역학으로 본 원숭이띠 해운세

2016년(단기 4349년)은 병신(丙申)년으로 원숭이띠의 해라고 합니다.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순환하는 간지로 서른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병신(丙申)년의 천간 병자(天干丙字)는 역학상으로 양화(陽火)에 해당하며 태양, 타오르는 불, 옹광로의 불, 화산의 불, 원광석을 녹이는 불, 불꽃, 광채, 큰불 등을 말하며 왕성, 정열, 에너지, 열기, 격렬함, 소멸, 위험 등을 의미합니다. 병(丙)이라는 글자는 현저하게 밝은 것을 뜻합니다. 「석명(釋名)」이라는 책에 따르면 병(丙)은 병(炳)이어서, 만물이 생기어 밝고 확실해 지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쪽, 계절은 여름, 색은 적색을 뜻합니다.
신(申)자는 십이지 동물에서 아홉 번째 들어오는 글자로 동물로는 원숭이를 의미합니다. 절기로는 입추(立秋)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뜻이고 만물의 성장이 모두 이뤄져 여물기를 기다리는 때인 음력으로 7월입니다. 오행으로는 양금(陽金)이며, 방위로는 서남서(西南西)이고 하루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말합니다. 대응하는 별자리는 사자자리(Leo)입니다.
병신(丙申)은 납음오행(納音五行)으로 불 때 산하화(山下火)에 해당되며 산하화(山下火)란 산 아래의 불, 해질 때의 석양 노을빛을 뜻합니다. 해가 서산에 기우니 마치 불꽃이 산 밑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2016년의 근본운은 화(火)입니다. 병신(丙申)은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2016년의 행운의 색은 Red, Gold, Beige, Orange 색이고 행운의 숫자는 5와 7입니다.

역학으로 본 원숭이띠해의 전망

만물을 밝혀주고 사물의 이면까지 꿰뚫는 특징이 있는 해이므로 외면의 화려한 면과 다른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일들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지는 시끄러운 사건이 생기는 해이니 정치인, 유명인, 연예인 등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역사 속의 원숭이해에는 대체로 격변과 혼란스런 일들이 벌어졌듯이 2016년 역시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인 파산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갖아야 합니다. 먼저 배울면 언젠가 다시 돌려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끼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사에 임한다면 더욱 많은 것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뜻을 펼치게 됩니다. 성급한 행동이나 결론만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역마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늘 마음이 바쁘고 해외여행이나 이사, 이주를 많이 할 것입니다. 이사나 먼 곳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지만 특히 방향이나 위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정부(政府) 인사들을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최대의 위기를 겪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大形)사고, 태풍피해(颱風被害), 지진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망업종은 영화산업, 신약개발, 자동차 관련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 아이디어 산업 분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건강은 감기, 바이러스, 신경통, 두통, 소화기 계통 등을 조심하고 중년층 이상은 혈액 순환이 잘 안될 수가 있으니 간단한 맨손 체조라도 늘 해야 합니다.
신(申)은 양금(陽金)과 남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므로 2016년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한 해로 남성파워가 두드러질 것입니다. 장남, 장녀로 출생한 이들에게 행운의 여신이 손짓을 할 것입니다. 남아가 많이 태어날 것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원숭이띠 해는 여러 가지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원숭이띠 해는 아주 진보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이 해의 격언은 아니요 또는 못해요 라는 말은 하지 마라 입니다. 우리 모두 열기를 내뿜으며 나갈 것이며 원숭이띠 생의 학문과 진보에 대한 타고난 재능의 거센 물결 덕분에 만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해를 지배하는 행운의 꼬마 도깨비인 원숭이는 우리로 하여금 위험하지만 성실한 일들을 모험하고 성찰하고 개척하도록 촉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아껴서 꼭 해야 하는 것부터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찬스와 기회를 재빨리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면 거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단력과 재치가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한 해는 아닙니다.
원숭이띠 해에는 만사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민첩한 원숭이는 모든 방면으로 시도해보기 전에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조차 이루어지며 즉흥적인 즉 발명과 같은 일들이 풍부할 정도로 많 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모두 서로 허세를 부리며 애쓰는 한바탕의 경기처럼 바쁘게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다소 즐겁고 신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MBC연예대상]김구라 예능 새역사 썼다

대상 수상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김구라가 '2015년 연예대상'을 수상했다.

김구라는 29일 밤 9시 방송된 '201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는 "무한도전"이라는 10년 동안 시청자와 함께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받아서 미안하고 감사하다. 제가 받을거라고 정말 생각할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제 방송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있다. 과거에 했던 잘못은 평생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방송계 문체적 인물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자업자득이 아니라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은 시청자를 위해 존재한다. 시청자들에게도 감사하고 '라디오스타'는 제 심장같은 프로그램이다. '마리텔', '능력자들', '세바퀴' 제작진 모두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남겼다.

다음은 2015 '방송연예대상' 수상



명단이다.

▲대상=김구라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무한도전'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김영철, 하하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수상=김소연, 한채아 ▲뮤직토크쇼 부문 남자 최우수상=김성주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우수상=김현숙, 황석정 ▲뮤직토크쇼 부문 남자 우수상=김연우, 황제성 ▲뮤직토크쇼 부문 여자 우수상=임지연 ▲특별상=김영만, 신봉선, 전미라 ▲베스트커플상=육성재 조이 ▲가수 부문 인기상=엑소 ▲버라이어티 부문 인기상=강예원 오민석 임원희 전현무 ▲뮤직토크쇼 부

문 인기상=사이니 민호 ▲공로상='무한도전' 팀 ▲올해의 작가상=박원우, 이언주 ▲PD상='라디오스타' 팀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전현무 ▲라디오 부문 우수상=사이니 종현, 이진우 ▲라디오 부문 신인상=서경석, 신봉선 ▲뉴스타상=곽시양, 조이, 초아 ▲우정상=김용건 ▲베스트 팀워크상='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3기 팀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신인상=육성재 슬리피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신인상=서유리 엠버 ▲뮤직토크쇼 부문 남자 신인상=김형석 ▲뮤직토크쇼 부문 여자 신인상=박나래 reddgreen35@news1.kr



'1박2일'이라 가능했던 웃음, 시상식도 예능화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1박2일' 이 시상식까지 리얼 예능으로 풀어내며 웃음을 선사했다.

멤버들은 평소와 달리 멋지게 차려입고 시상식 현장에 도착했다. 차태현과 김종민은 서로 만나자마자 대상과 최우수상을 외쳤다. 김준호 역시 "우리가 프로그램상 받으면 좋겠다"며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날 시상식 최고의 이벤트는 만형 김주혁의 깜짝 등장이었다. 김주혁은 동생들 몰래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애들 뭐 받아?"라며 든든한 만형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간식으로 허기를 채우던 중 최고 엔터테이너상 수상자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떨결에 무대에 올랐다.

김주혁은 "우리 동생들 많이 사랑해주세요"라며 끝까지 동생을 생각

하는 수상소감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김주혁의 깜짝 등장으로 시끌벅적해진 멤버들은 바로 김종민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자신의 일처럼 축하했다. 멤버들은 두서없이 수상소감을 말하는 김종민 뒤에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민 역시 "내가 싫다. 진짜"라며 부끄러워해 보는 이들을 폭소케 했다.

이와 함께 멤버들은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내 광대 승천하며 수상의 기쁨을 누리 눈길을 끌었다. 차태현은 사전에 준비한 'thanks to 북북북 미션'을 수행한 것은 물론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트로피 소유권을 놓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등 시상식을 예능으로 바꾸며 마지막 시청자들을 웃음 짓게 했다. poolchoya@news1.kr

잭 블랙 '무한도전' 출연하나? "논의 중"

(서울=뉴스1스타) 온라인뉴스팀 = 잭블랙이 '무한도전'에 출연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영화 '쿵푸팬더3' 측은 29일 잭 블랙의 '무한도전' 출연에 대해 "'무한도전' 제작진과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무한도전' 제작진 역시 "잭 블랙에 출연을 제안

했다. 논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잭 블랙은 오는 1월20일 한국계 감독인 여인영과 '쿵푸팬더3' 홍보 차 첫 내한한다. 잭 블랙은 '쿵푸팬더' 1편부터 3편까지 주인공 포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040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하룻밤', 연애 을(乙) 남녀의 리얼 스토리

연애 두려운 N포 세대 위한 힐링 처방전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연애하다 차이고 썸 타다 놓치는 연애 을(乙) 두 남녀의 현실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극적인 하룻밤'이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얼떨결에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원나잇 쿠폰'을 만들면서 인연의 끈을 이어나간다.

윤계상과 한예리는 '극적인 하룻밤'을 통해 남녀관계의 진솔한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안정감 있는 두 사람의 연기가 스토리 전개에 더욱 힘을 실었다는 평. 단순히 아름답게 포장된 사랑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세대 피 끓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극중 전 애인에게 버림받은 정훈으로 분한 윤계상은 지난 주말 방송가를 장악하며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우선 윤계상은 대세 프로그램 tvN '삼시세끼 어촌편2'를 시작으로 영화소개 프로그램,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라디오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까지 출연하며 팬들을 만났다. 특히 일요일 오후 방영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스타팅 코너에 출연해 특유의 유쾌한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그는 "수위 높은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강력한 것 한 방 있다"라는 말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uu84@news1.kr



티보플레이 12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SBS | 어머님은 내며느리 |
| 3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4 | SBS | 마녀의 성 |
| 5 | MBC | 내일도 승리 |
| 6 | MBC | 최고의 연인 |
| 7 | KBS | 가족을 지켜라 |
| 8 | MBC | 아름다운 당신 |
| 9 | MBC | 내 딸 금사월 |
| 10 | KBS | 다 잘될거야 |

티보플레이 12월 4째주 신규 방송

티보플레이 12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극적인 하룻밤 | 윤계상, 한예리 |
| 2 | 늙은 자전거 | 최종원, 박민상 |
| 3 | 협녀, 칼의 기억 | 이병헌, 전도연 |

'내일도 승리' 막장드라마가 상큼해도 되나요?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자극적인 소재는 아침드라마의 필수불가결 요소. 주부 시청자를 주타깃으로 잡고 있는 아침드라마는 일명 '막장'이라 불리는 강한 소재로 높은 시청률을 구하고 있다. '내일도 승리'는 자극적 소재 뿐만 아니라 트렌디함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상큼한 막장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다.

'내일도 승리'는 사랑하는 남자의 배신과 집안의 몰락을 딛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어나가는 한승리(전소민 분)의 성공

기를 그린다. 현대판 '신 평강공주와 바보운달'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한승리가 나흥주(송원근 분)를 성공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정지인 PD는 "자극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침드라마의 상황"이라며 "중요한 건 배우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 또 현실이 더 막장이기 때문에 과연 드라마가 막장일까 싶다"고 솔직한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reddgreen35@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24.99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특별 할인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권리에 가해된 최신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The Best On-Demand \$1.99
 현재 TV에서 방송 중인 TV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선상에 유무선 TBO TV와 TBO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The Best On-Demand,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tae@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esu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6만~7만, Asking **\$20,000**
6.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7.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8.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9.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군, Rt 9 인접, 근해 Chestnut Hill 쇼핑센터와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0.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히팅,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1.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800**
12. 렌트 : 25 Baker St, Belmont, 3bed 1.5 bath 1,500sf, 벨몬트 High school에서 5분거리, **\$2,2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28회

반년의 기록...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첫 눈이 내렸다. 어린 아이처럼 설렌 마음으로 창밖을 얼마 동안 내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으로 나이를 가늠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 않던가. 고희를 넘기고 팔순을 맞으신 어른들께 여쭙봐도 같은 말씀을 해주신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이다. 눈이 내리니 잠시 어린아이가 되어본다. 요즘 아이들 이야 푹푹한 기계와 친구가 되어 흉내 말아볼 시간이 거의 없다. 어려서 흉도 만져 보고 흉내도 말아보고 들풀과 들꽃도 따주하고 풀 내도 말아보고 가끔은 눈을 감고 바람 소리도 들어보면 좋으련만.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뛰어놀아야 몸과 마음과 정신도 튼튼해질 것인데 말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하얗게 눈 내리던 긴 겨울방학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지냈더라 생각에 머물러 본다. 그래, 겨울 방학이면 언니와는 다섯 살 터울이 겨 놀아주지 않아 언니와 뛰어놀던 추억은 별로 없다. 늘 언니가 내게 양보했던 기억밖에는 말이다. 45여년 전 시골 작은 마을의 겨울은 왜 그리 추웠는지 모른다. 아무래도 방한복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더욱 그랬을 게다. 이렇게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에는 동네 또래 친구들과 눈

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깔깔거리며 놀다 보면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굴뚝의 연기 피어오르면 '막내야 밥 먹어라'하고 귀에 익은 엄마의 목소리 귓가에 들려온다.

한국의 겨울방학은 미국의 여름방학 만큼이나 길었다. 두 달 간의 긴 겨울방학 동안 몇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저학년에게는 '그림일기'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나는 그 어느 숙제보다 그림일기 숙제는 거르지 않고 잘했던 기억이다. 오늘 문득 그림일기를 쓰고 그렸던 그 시간이 그리워졌다. 어쩌면 빛바랜 그 어린 시절의 작은 얘기들 속에 오늘의 내가 이미 들어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어린 시절 그림일기를 쓰고 그리다 자라면서 늘 기록하며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고 여러 곳을 여행할 때도 기록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으려 사진으로 담곤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해마다 '반년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반년으로 줄여 사진을 정리하며 간단한 메모를 남겨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지금도 정리된 기록을 들여다 보며 지난 기억과 추억에 젖어보기도 한다.

때로는 다른 나라를 여행했거나 다른 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지의 명소와 명칭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다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 참으로 좋다. 나이 들면서 아무래도 기억력도 떨어질 테니 무엇보다도 눈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록으로 '사진'을 추천하고 싶다. 그 사진 아래에 간단한 기록으로 날짜와 장소와 명칭 정도라도 좋다.

요즘은 카스(카카오 스토리)에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을 남기는 분들도 많으니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참으로 좋지 않은가.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춰 자신만의 기록으로 남겨도 좋을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 말이다. 다만, 복잡한 것이 싫어 가장 친한 친구 몇으로 정해놓으면 그런대로 재미도 솔솔 있고 부산스럽지 않아 좋다. 현대인이라면 그래도 소소한 일상에서의 '작은 누림' 정도는 찾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가족들과의 공유는 참으로 재미있다. 우선 우리 시대 가족들을 예로 들자면 시어른은 한국에 살고 계시고 시아주버님

댁은 워싱턴에 그리고 시누이(누나) 댁은 프랑스이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손자·손녀들을 합치면 모두 15명이다. 그래서 날마다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네트워크는 밤낮없이 쉬질 않는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부모 형제가 먼 곳에 있으니 보고 싶다고 쉬이 볼 수 없고 보고 싶은 마음을 글이나 사진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서로의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소통이 이뤄지니 고마운 일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흐른다. 잡을 수 없는 시간은 언제나 앞을 다투고 지난 세월은 시간의 꾸러미들 속에 희로애락의 소소한 일상을 챙겨 희비를 낳는다. 그래, 그렇게 발 빠른 시간을 좇으려 애쓰지 말고 내 시간을 살자. 그래, 지난 세월의 흔적들 속 남은 아쉬움과 후회도 내 삶이어서 고맙다고 토닥 토닥 보듬어 주자. 그래, 기쁜 환희만이, 즐거운 행복만이 인생이라면 조금은 밋밋해 재미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삶에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겠는가. 이렇듯 소소한 일상의 '그림일기(반년의 기록)'를 써보자.



한담객설閑談客說: 새로워 지시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새해가 밝았다. 한살씩 더 드셨을 테니 한해 모두 건강하시라. 근하신년! 백린선생께 병신 丙申년의 유래를 들어야 하는데 그건 아쉽다. (밭을 조심하시라)

이번 겨울 광화문 글판에 올라 온 글이다. 매일 매일이 다를 것이고, 매일 매일 새로워 진다. 올해도 지난해와 다를 것이고 또 새로울 게다. 가는 세월도 아름답다.

'두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 (광화문 글판, 2015년 겨울)

옛적 이야기를 또 꺼낸다. 아주 오래 전이다. 어린 아내와 슈퍼마켓에 갔다. 맥주를 계산대에 올렸다. 캐쉬어가 아내를 힐끗 쳐다보고,

아이디를 보잔다. 아내가 얼굴을 찡그렸다. 난 한편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 이렇게 어린 아내와 살고 있구나. 아내가 이제 돋보기를 쓴다.

안과에 갔다. 눈이 침침해 왔고, 안경을 벗어야 글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의사가 말했다. '노안老眼이다. 돋보기를 써야 한다.' '지금 처방해 주라.' 의사가 내린 준엄한 선고였다. 의사가 던붙인 말은 내 염장을 질렀다. '너무 심란해 말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바이포컬 안경잡이가 되었다.

며칠 전이다. 커피를 사고자 했다. 잔돈을 미리 준비해 돈을 냈다. 캐쉬어가 망설였다. 나 또한 뜨악했다. 값이 얼마인가 내가 알기 때문이다. 캐쉬어 할머니는 일불짜리 지폐를 돌려주며 말했다. '시니어 디스카운트!' 아이디 보지는 소리도 없었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화장실로 향했고, 거울앞에 섰다. 그렇게 보이니? 흰

머리도 없고 주름살도 없는듯 한데, 스스로 위로하기로 했다. 그럼, 그럼. 이사람들 동양사람 나이를 제대로 볼 수 없지.

어느 소설가가 말했다. 남자 나이 중년이면 아버지의 죽음에 막막해 한단다. 아버지 생전에 겪지 못한 황폐함이 몰려든다는 거다. 죽음의 다음 차례가 바로 자기자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란단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새해 벽두부터 별 멋적은 이야기를 꺼내 매우 죄송하다. 한데, 가는 세월과 늘어나는 주름과 빠지는 머리털과, 희어지는 콧털이야 무슨 재주로 막으랴. 그걸 보면, 매일 새로워지기는 새로워 진다. 못보던 흰 머리, 새치가 새로 생기니 말이다. 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선천도 탈모증세는 없었으니 몰려 주신대로 여전히 머리는 성하다. 게다가 붉은색 돌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그닥 더 붉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착색 되어가는가? 그런데 곱

술머리는 퍼지지 않는다. 여전히 구불거린다. 서유석이 부른 '가는 세월' 이다. 그가 늘어지는 목소리로 불렀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잡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잡으려 한다고 잡힐리도 없다. 가는 세월이 나만 비켜가는 줄 알았다. 세월은 보스톤 겨울바람처럼 공평하다. 모든걸 훑고 지나가는 거다. 보스톤 겨울바람이 나이도 데려갔다. 그러니 가야 하는 세월이라면 가라고 내버려 둔다. 대신 날마다 새로워질 겐가. 대신 해마다 새로워질 것인가. 콧털은 희어지는데, 빨리도 자란다. 거울 앞에 서서, 콧털이나 다듬어야겠다. 베지나 말아야 할텐데, 새해 벽두에 피를 볼수는 없다.

올해도 새로워질 당신. 근하신년. 올 한해 더 수고할 당신. 짹!

'우리의 걸사님은 늙아지나 우리의 속사님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16)



보스톤코리아 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하루 하루
매일 행복하세요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9. 레드 클라우드의 빛나는 승리 (4)

라라미조약 체결(1868년)
이 사건 이후에도 인디언들은 보즈만 도로 상에 있는 세 개의 요새를 끈질기게 공격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마차를 습격하는 등 백인들이 자기네 영역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치의 양보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건은 파우더강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겼던 네브래스카 주에서 1867년 8월 7일에 발생한 열차 습격사건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또다시 화친 조약 체결을 시도하여 그 해 9월 19일 셔먼(William Tecumseh Sherman) 지역 사령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열차편으로 네브래스카 주의 플레이트 시로 보내 인디언 추장들과 회담을 열도록 했다. 이 회담장에 붉은 구름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미국정부 측은 수우족으로 하여금 파우더 강 유역을 떠나서 미주리 강 상류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을 제의했다. 인디언들은 이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해 버렸다. 다른 추장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붉은 구름은 셔먼의 건방진 태도와 터무니없는 제안에 크게 실망하였다. 또 다른 정부 대표단이 11월 9일 인디언 추장들과 화친조약을 맺기 위하여 라라미 요새로 왔다. 붉은 구름은 정부대표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 전령을 보내서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사냥터 중 마지

막 남은 파우더강 유역에서 물러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이로써 이번 회담도 결렬되었다.
1868년 봄에 셔먼을 포함한 정부대표단이 라라미요새를 다시 찾아 왔다. 그들은 워싱턴으로부터 보즈만 도로상에 있는 요새들을 철수시키고 붉은 구름과의 평화협정을 타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미국 정부의 선택으로는 이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2만 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즈만 도로를 포기하고 대신 대륙횡단철도를 지키는 게 실익이 있다고 보았다. 대표단은 붉은 구름에게 특사까지 보내어 라라미 요새 회담장에 나와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붉은 구름은 동맹군들과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며칠 후 인편으로 대표단에게 짚막한 그의 입장을 전달했다. 내용인즉, 보즈만 도로상의 요새와 군인들을 철수시키면 회담장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붉은 구름의 단호한 태도는 셔먼 일행에게 상당한 모욕감과 함께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도 협상대표단은 빈손으로 동쪽으로 돌아갔다.
결국 미국 정부가 두 손을 들었다. 그해 7월 29일 가장 북쪽에 있던 스미스 요새부터 철수시켰다. 이튿날 아침에 붉은 구름은 전

사들을 이끌고 요새의 시설들을 불태웠다. 한 달 뒤에는 필 커니 요새가 폐쇄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이엔족이 와서 요새의 건물들을 불태웠다. 또 며칠 뒤에는 리노 요새에 남아 있던 마지막 군인들마저 떠남으로써 보즈만 도로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붉은 구름의 빛나는 승리였다. 2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였다. 드디어 11월 6일 전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라라미 요새에 나타나 승전군의 대표자격으로 조약에 서명하였다. 조약에 의거 수우족은 그들의 성산인 블랙힐즈를 포함한 사우스 다코타 주 일대를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받고 파우더강유역의 사냥터도 인디언의 땅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서부 캔사스와 동부 콜로라도에서도 사냥할 수 있도록 인정받았다.
붉은 구름의 위대한 승리
이로써 2년간에 걸친 라코타 인디언과 미군과의 전쟁은 인디언 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등 공로자는 역시 붉은 구름, 곧 Red Cloud이었다. 붉은 구름은 1868년의 조약 체결후 자진해서 미국정부가 마련해준 인디언보호구역으로 들어갔다. 1870년에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인디언 출신의 인디언담당국장인 파커(Ely S. Parker)와 그랜트(Ulysses S. Grant) 대통령도 만났다. 그는 백인들의 문명을 어쩔 수 없는 대세

로 받아 들여 무력을 사용한 투쟁을 버리고 연방정부 기구인 이민국(Bureau of Indian Affairs)과 접촉하여 인디언을 위한 인디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그는 1860년대 말부터 라코타 인디언들이 평원에서 수렵을 중심으로 한 생활방식으로부터 인디언보호구역내에서의 정착 생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1874년부터 블랙힐즈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됨으로써 인디언과 백인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자 1875년에 워싱턴을 다시 방문하여 백인들의 불법적인 인디언 영토 침범을 항의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이듬해에 전쟁으로 발전되었다. 붉은 구름은 이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1884년에는 그의 가족과 다른 몇 명의 추장들과 함께 가톨릭교회의 영세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그는 또한 1887년 소위 도스범이라고 불리는 토지할당법이 제정되어 인디언의 땅이 부당하게 백인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 시대 인디언 지도자 중에서 가장 장수하여 1909년 88세의 나이로 파인릿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12 화랑세기花郎世紀, 서문序文(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신라 21대 소지왕(재위기간 471 ~ 500)은 할아버지 눌지왕이 고구려에 반기를 들고 대내적으로 체제정비와 왕권강화를 공고히 한 위업을 이어받아 그 역시 상당히 중요한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고구려로부터 받은 잦은 침략으로 재위동안 크고 작은 전투가 파상적으로 이어졌다. 다행히 가야는 제압되었고 백제와는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침에 공동대처를 했지만 장수왕과 문자왕(장수왕의 손자, 아들 고조다高助多가 일찍 죽어서 손자가 왕위를 이었다. 사실은 장수왕이 98세까지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 시대의 고구려는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며 인접국과 전쟁을 끊임 없이 하였다. 그래서인지 삼국사기의 소지왕 조에는 대부분이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대고구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지왕이 날이군(현 경북 영주)의 아름다운 벽화를 찾아간 장면을 그려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사실 처음에는 소지왕이 날이군으로 순시를 간 것이 벽화를 찾아간건 아니다. 당시 날이군은 신라의 변방이었다. 소백산맥의 죽령을 경계로 고구려와 맞대고 있었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구려의 군사들

이 주둔하여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지방토호는 친고구려 성향이었다. 그래서 중앙의 왕은 날이군이 변방이지만 군사요충지인 만큼 직접 방문하여 이 지방을 다스리는 토호세력과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이 지역이 신라의 통치영역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와 동시에 날이군의 파로는 왕의 행차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알려진 자신의 딸 벽화를 바쳐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다. 더구나 당시까지 왕은 후계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벽화를 한 번 보고 왕성으로 돌아간 왕은 그녀의 미모에 상사병이 걸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영주까지 평민의 복장으로 변복을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사랑을 불태우다가 종래에는 왕궁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벽화의 어머니 벽아도 함께 데려가서 후궁으로 삼았다.
고타군(현 경북 안동)의 노파도 또한 그냥 '늬은이' 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백성의 삶보다는 더 깊은 정치적 암시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신라의 북쪽에 서로 접경을 이루고 있는 두 지역 안동(고타군)과 영주(날이군)는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이었다. 안동은 전통적으로 신라에 귀속되어 있었고 영주는 자주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에 친고구려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고타군의 노파는 신라중앙왕실에 협조하는 친신라토착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변복을 했지만 왕이 아무데나 유숙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아무나 (변복을 했다지만) 왕에게 조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내적인 정사도 잘 꿰치며 대외적으로도 고구려의 지속적인 침공에도 용감하게 맞섰던 군주가 벽화를 왕궁으로 데려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었고 또 왕위계승서열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던 방계왕족인 지증이 권좌에 오른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아마도 지증왕은 이런 비정통성을 합리화하고 당시 권력의 상징인 '성기의 크기' 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큰 옥경(임금의 성기를 높여 부르는 말이며 그의 크기는 45cm였다)에 맞는 왕비를 찾았다고 공고를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제1왕비는 소지왕의 후궁이었던 연제부인이었다.
다시 화랑세기 대역 원문의 서문으로 돌아간다.
[옛날에 선도는 다만 신을 받드는 일을 위주로 했는데 국공들이 무리에 들어간 후에는 서로 도의道義를 힘썼다. 이에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

수와 용감한 병졸들이 이로부터 나왔다. 화랑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진흥왕조와 김흠운전에 걸쳐 두번이나 인용한 김대문의 미사여구, 이 문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군주와 통치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현좌충신賢佐忠臣 양장용졸良將勇卒' 들만 있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군주도 나라를 통치할 수 있으리라..., 게다가 통치자가 영민하다면 태평성대를 누리며 백성들의 삶은 평화롭고 풍요로우리라~. 지난 반만년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과연 몇 명의 영민한 군주가 현좌충신과 양장용졸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했을까?
화랑세기는 김대문의 아버지 오기공과 김대문이 지었다. 김대문의 가문은 대대로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를 배출하였다. 그래서 가문의 지위를 밝혀주는 화랑의 세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검진과 시술을 한 곳에서-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H+ 양지병원은 350병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다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남: 85만원 / 여: 7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미백제 검사 (상체/하체 비인도, 사체 포함)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영부세라 검사 (간염, 대장암, 황달, 난소암, 전립선암) 5. 상체/하체 검사 (흉부 X-Ray, 타코, 노폐성 재촬영) 6. 요 검사 10종 7. 제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근, 양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흉부 (C)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술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기본 검사 (상체/하체 비인도, 사체 포함) 2. 혈액 검사 (순환기계 검사) 3. 혈액 검사 (응집력 검사) 4. 영부세라 검사 (간염, 대장암, 황달, 난소암, 전립선암) 5. 상체/하체 검사 (흉부 X-Ray, 타코, 노폐성 재촬영) 6. 요 검사 10종 7. 제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특수촬영)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경, 흉근, 양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1. 뇌 MRI 2. 뇌 MRI 3. 관상동맥 CT 4. 흉부 (C) CT 5. 전립선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경부관 초음파 8. 전방선 초음파 9. 부인과(자궁) 초음파 10. 골밀도 검사 11. 대장내시경수술

당일 종합검진

남: 50만원 / 여: 60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C)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1. 갑상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유방 초음파 4. 골밀도 검사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 PET CT + 핵의학영상(CT + 비인도) & 호르몬 + 호르몬대신항암제, 동위원소치료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포함 : 대입서비스 제공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예약)
- 당일 종합검진: 2pm~5pm (1pm/1회 2회) 1건/1회/100명, 예약)
- VIP 종합검진: 2pm~5pm (1pm/1회 2회) 1건/1회/100명, 예약 / 공평의료
- VVIP 종합검진: 2pm~5pm (1pm/1회 2회) 1건/1회/100명, 예약 / 공평의료



2008년부터 해외동포 건강검진 시행 대림성모병원

- 5개의 특성화된 전문 센터 구비
- 15개 진료과에 40명의 전문의를 비롯한 80여명의 의료진
- 대다수 의료과 대상 : 라식선 부분 5년 연속 대상 수상
- 약 2,500여명의 해외동포 및 외국인 검진 및 수술 경험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건강검진 안내

- ① Royal Gold 검진 및 입원종합검진시 1인실 배정 / ② 세면도구 제공 / ③ 검사결과지 및 영상 CD 제공
- ④ Royal Gold 검진은 PICK UP SERVICE 제공 / ⑤ 검진시행부터 결과상담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Royal Gold 검진	남성 : 215만원 여성 : 225만원
입원 종합 검진	남성 : 85만원 여성 : 75만원
당일 종합 검진	남성 : 50만원 여성 : 60만원 (대장내시경 추가: 남성 60만원 여성 70만원)
복화 검진	▶ 뇌 정맥검진 : 9만원 (소요시간 1시간) ▶ 심장 정맥검진 : 17만원 (소요시간 2시간) ▶ 심장 정맥검진 MD CT : 22만원 (소요시간 30분) ▶ 골다공증 검사 : 5만원 (소요시간 30분)

전문센터 및 주요수술 유방입갑상선 센터 / 소화기내시경 센터 / 각주관절 센터 / 중풍치매 센터
하지정맥류 / 다한증 클리닉 / 부인과 클리닉 / 복강경 클리닉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내 남은 생애의 첫날, 다시 물어야 할 것들'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I -

송구영신(送舊迎新) 2016년 새해가 왔다. 말 그대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주다. 모든 이가 2016년의 매일 매일이 가장 소중한 날로 채워지길 기원해본다. 이런 필자의 마음을 이해한 수녀가 쓴 '12월의 편지' 수필집의 글은 아주 잘 표현해준다. "오늘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만약,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생을 마무리를 질 것인가? 911의 재앙에서 죽음을 눈 앞에 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감사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들은 일의 좋은 마무리 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대프트는 2000년 신년사를 통해, '일'은 인생의 중요한 5가지에 한 부분임을 이야기 한다. 그는 인생을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Juggling)으로 비유하며, 각각의 공을 '일,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영혼(Spirit)'으로 나누었다.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 오르지만, 다른 4개의 공들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은 유리공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일, 일, 일중독에 빠져 인생의 대부분을 일에 대한 찬사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을 고무공으로 비유함이 놀랍다. 고무공이든 유리공이건, 저글링을 하면서 이중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된다면 다른 공들도 닳고, 상처입고, 굽히고, 깨지고, 흩어져 버려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다. 그러함으로, 이 5개의 공의 밸런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저글링은 일단 3개가 넘어가면 쉽지가 않다. 생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저글링만큼 어렵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정 무엇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다거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어깨는 3개의 공이 넘는 저글링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해 할 만큼 겁이 날 수 있다. 대프트 회장은 그림에도 이 5개의 공들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생은 경주가 아닌 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며 가는 여행이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고, 현재(Present)가 우리가 매일 받는 선물(Present)이기에, 현재와 선물이 영어로 같은 단어인 'Present'이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삶이 하루에 한 번 뿐인 것을 잊지 않으며, 하루하루 모든 인생의 날들을 충실히 살아라."

12학년인 토마스가 마리아나를 학교에서 괴우다 걸려, 일주일 정학을 받았다는 소식에 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토마스의 부모는 모두 대학교수로 그들의 지성은 많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교수 종신 재직권(Tenure)을 받으려, 토마스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토마스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 테라피를 받으며, 이미 토마스가 9학년때 마리아나를 접했고, 이미 너무 깊게 중독이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는 모두 테뉴어를 받은 교수직을 가졌지만 '가족'이라는 유리볼이 깨어지기 직전에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토마스가 자라면서 매일 매일 주는 기쁨을 즐기며 대신, 교수직 테뉴어라는 경주에 몰입했고, 그들의 생의 밸런스가 깨져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아들의 치료를 하면서 부모는 테뉴어를 누가 먼저 따는 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정작 돌보아야 할 토마스를 등한시 했음을 고백했다. 부모들은 자신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토마스와의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두면서 자신의 생의 밸런스를 맞추었다.

토니는 당뇨병 증상이 보이자, 의사는 약물

치료, 운동과 음식조절을 권유했다. 고집이 센 토니는 가까이 있는 가족의 염려와 보살핌을 잔소리라고 귀찮아 하며 치료를 무시했다. 자신이 과거에 풋볼을 할 만큼 건강했다는 사실에 집착을 하며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눈, 신장, 신경에 손상이 오기 시작했고, 더 심각하게 생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성생활의 지장이었다. 약간 굵이 가던 '건강'이라는 유리볼은 성능 저하라는 다른 공을 갖기 시작했고, 그의 남성상의 자신감이 위축되면서 그의 생애에 큰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토니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매일 치료에 임했고, 가족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건강'이라는 유리볼을 재생하고 그의 생애에서 밸런스를 찾아갔다.

제임스는 큰 회사의 CIO로 700명의 사원을 둔 임직원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명예, 부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저글링을 잘하게 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 매사추세츠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 이사한 동네의 이웃 친구들을 슈퍼볼 파티에 초대했는데 70명이 넘는 게스트가 자신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게스트의 수가 줄어들었다. 8년이 지난 후, 게스트 전원 모두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아지며 서로 노력하고 공유하며 쌓여지는 과정인데, 그는 자신이 필요하면 찾는 이해관계의 결과로 보았다. 현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는 관계의 노력없이, 그저 일 년에 몇 번 자기 이벤트에 초대하며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로 친구가 생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의 딸인 케시의 거식증으로 테라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의 큰 두려움이었음을 표현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일

의 성공에 매진했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케시를 완벽하게 키우려 했다고 했다. 그의 완벽성은 관계를 컨트롤하게 했고, 그의 사랑법은 콘트롤이었다.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친한 친구를 살수는 없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그는 생의 저글링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다.

케어린은 헤로인 중독자이다. 16살에 처음 시작했던 마리아나를 시작으로 30년을 약물중독으로 삶에 피해가 너무나 많다. 46살인 그녀는 HIV에 감염되어있고, 6번의 뇌졸중으로 한쪽 시력과 청각을 거의 잃었다. 지난 해 초에는 심장에 이상이 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마흔 중반의 그녀는 60세의 여인처럼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녀는 헤로인대신 헤로인을 대신한 써박손(Suboxone)약을 먹으려 써박손(Suboxone) 클리닉을 다닌다. 그녀는 헤로인을 끊었다가, 또 시작하는 재발(Relapse)을 수없이 반복했다. 헤로인을 투약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정말 진짜처럼 한다. 헤로인을 구하려 몸을 판 적도 있다. 헤로인이 들어가면 그녀의 영혼은 병들어 간다. 그녀의 영혼이 빠져 나간 얼굴은 마치 시체의 얼굴같이 섬뜩하다. 헤로인을 끊은 지 근 이년, 그녀의 영혼은 다시 맑고 향기로운듯 있다. 맑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면 깨끗한 영혼을 가지려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자신이 떳떳해져서 좋다는 그녀의 깨끗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자, 화장을 안 해도 너무나 아름답다. 해맑은 미소와 함께 청아한 그녀의 영혼은 그녀의 생애 밸런스를 준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새해의 시작인 오늘, 이 시간을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의 선물로 즐기며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의 공들을 균형에 맞추어 날려보자. 2016년의 매일 매일들이 차곡 차곡 모여 소중한 한해가 되도록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자!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34년 기술력

꾸준히 잘자리에서 낮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세요! www.heraldemart.com

아랫목 溫水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싱글사이즈
퀵사이즈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01 공중파 방송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보타가 없으니 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레드 가변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무료배송 (하와이, 알라스카는 \$90추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Tbo 플레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한국 방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코자 특별할인을 실시합니다.

월 \$ 24.99

프리미엄 무제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13)

뮤추얼 펀드와 재정설계사

특정한 회사 주식을 투자로 쓴맛을 경험한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펀드의 많은 자산과 정보력 그리고 주식 전문가라 말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의 투자 경험을 이용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설계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를 보면 뮤추얼 펀드 투자는 잘못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펀드매니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인덱스 펀드로 미국에서 회사 주식규모로 500개 회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한 연구기관(S&P Dow Jones Indices Scorecard)에서 뮤추얼 펀드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대기업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지 14%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적었던 뮤추얼 펀드가 무려 86%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일 년이 아닌 지난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9%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2%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정설계사는 손님의 소중한 돈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재정설계사가 인덱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뮤추얼 펀드를 선별해서 투자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도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데 제삼자인 재정설계사가 미래에 탑 14%에 속하는 뮤추얼 펀드를 선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탑 14%에 속하는 뮤추얼 펀드를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특정한 펀드 매니저가 항상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고 반대로 나쁜 성적을 계속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탑 14%에 속하는 뮤추얼 펀드가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설계사는 손님의 자산을 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할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재정설계사가 몸담은 회사와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월 스트리트 신문에 발표된 내용(Some Merrill Brokers Could See Cut in Base Pay, 12/2/2015, WSJ)을 인용합니다.

매릴 린치(Merrill Lynch) 투자회사에는 약 14,000의 재정설계사가 있습니다. 재정설계사는 매릴 린치에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합니다. 그래야 재정설계사의 수입 역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회사에 수익금을 올리지 못하면 재정설

계사의 수입 역시 적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매릴 린치 수익금이 많아지려면 고객에게 경비와 수수료(expenses & commission)를 많이 부과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2016년부터 경비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650,000 이상이 되어야 41%가 재정설계사 수입이 되며 그 액수보다 적어지면 수입이 올해보다 더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와 본인의 수입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수료와 경비는 재정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투자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나의 수익으로 이어 집니다. 투자하는 데는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으나 경비는 항상 부과된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알아야 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에스크로(Escrow)의 이해

주택소유주들이 매월 내는 모기지 월 페이먼트에는 용자액수에 대한 원금(Principal)과 이자(Interest), 재산세(Property Tax), 그리고 콘도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집보험(home Insurance)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중 재산세와 집보험을 에스크로(Escrow)라고 합니다. 에스크로라는 단어는 주택용자 신청시 Good Faith Estimate이라는 비용계산서에서 Reserved Escrow Account라는 항목으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에스크로 계좌가 요구하는 적립액수(Reserved Amount)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뉴저지의 경우 대부분의 용자 은행들이 클로징시에 2개월에서 3개월치의 재산세와 집보험 액수를 용자신청자에게 거두어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에 적립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첫번째 담보권(1st Lien)을 가지고 있는 용자은행들이 담보권 행사에 대한 위험(Risk)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들이 재

산세를 해당 카운티에 내지 못할 경우 용자은행이 첫번째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티에서 먼저 집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자은행 입장에서 에스크로는 일종의 Security Deposit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집보험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용자은행은 주택가치를 평가하여 가치 대비 일정액수의 용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보험(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없는 주택소유주의 집이 화재로 전소될 경우 용자은행은 담보권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집보험 또한 에스크로 계좌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재산세와 집보험은 용자받은 액수를 완납(Pay off)하거나 새로운 은행에서 재융자를 얻게 되면 완납 후 30일 이내에 돌려 받게 됩니다. 이 때 기존의 용자은행은 지금까지 지급된 에스크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종종 주택 소유주들에게서 현재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데 월 상환액수가 달라졌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자 프로그램이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액수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주택가치의 변화에 따라 일년에 한번씩 그 액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용자은행 또한 일년에 한번씩 재산세의 변동에 맞추어 월페이먼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간혹 에스크로 계좌에 관련되어 Shortage Notice를 받게 되는데 이는 주택가치가 상승하여 재산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 기존의 에스크로 계좌가 일정 액수 이상을 유지 하지 못하기에 충분한 액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산세 변동폭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일정기간 동안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주가 에스크로 계좌를 원치 않을 경우 재산세와 집보험을 주택 소유주가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Escrow Waive라고 하는데 용자 신청시에 미리 요구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많은 용자은행들이 앞에서 언급한 재산세와 보험에 대한 위험(Risk)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원치 않는 용자 신청자들에게는 약간의 Penalty를 부과하거나 이자율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제7탄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상담 및 문의

안안과 함께하는 좋은 커리어,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안압검사, 백내장, 녹내장, A&P/B&P 초음파검사, 안저촬영검사, 시력검사 등
~~25~~ 만원 → **20** 만원

2 백내장 수술 (단안 :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 만원 → **109**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진료비 별도)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200~~ 만원 → **150** 만원 (안 종합검진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 만원 (DNA(10만원 상당) 안 종합검진 포함)

※ 수술 내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 가능합니다.
※ 수술에 관련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 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라섹을
놓치셨다면...

20~30대 어라(어라)기후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해
한 노안교정기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 등을
돋보기로 볼 때 피아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안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안안과 함께하는 좋은 커리어,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해안외과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5년 12월 넷째주)

● Omnibus Appropriations Bill for 2016

국회 상/하원은 지난 12월 16일 종합지출법안 (Omnibus Appropriations Bill, 여러가지 법안 변경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에 최종합의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후인 12월18일 이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민관련 법안도 상당부분 포함됐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중요한 이민관련 변경안들입니다.

-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중 Regional Center 라고 불리는 임시제도에 대해 2016년 9월30일까지 법적인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Regional Center 는 투자이민의 한 종류이며 모든 투자이민이 아닌 Regional Center 를 통한 투자만 임시제도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효력만

연장됐고 투자금액 등 세부적인 변경 없이 법적인 유효기간만 연장됐습니다.

- H-1B 와 L-1 비자 신청료

H-1B 또는 L-1 비자를 신청하는 회사 중 피고용인이50명 이상이거나 피고용인의 50% 이상이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일 경우 기존의 신청료와 별도로 추가 신청료를 내야합니다. 기존의 추가 신청료는 H-1B 일 경우 \$2,000 이며 L-1 인 경우엔 \$2,250 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추가 신청료를 각각 \$4,000 (H-1B) 와 \$4,500 (L-1) 로 인상했습니다. 이 추가 신청료는 최초 신청과 연장 신청에 모두 적용됩니다.

- 무비자 프로그램

소위 테러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자들과 이들 국가로 여행하는 자들

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포함됐지만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 DAPA/DACA (미국국적자의 신분 미비 부모/신분 미비 청소년의 추방 유예)

우려와 달리 이번 법안에는 DAPA 또는 DACA 의 시행을 가로막는 어떤 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있을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몇가지 이민 관련 신청서 개정

이민국은 최근 이민 신청과 관련한 법적 대리인 신청서 (Form G-28) 와 노동허가 신청서 (Form I-765) 를 개정했습니다. Form G-28 은 반드시 이번에 개정된 버전과 쓰셔야 하지만 Form I-765

는 개정 전 버전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법] 교수님들의 영주권 진행하기 (EB-2 Special Handling Case)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주변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교수 자리를 잡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고민을 듣게 되면 힘든 공부를 마쳤음에도 고민을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민법을 다루고 있는 종합로펌의 대표 변호사로서 “교수 자리만 잡으면 영주권도 쉽게 나오고 잘 풀릴 거야”, “그 고비만 넘기면 다 잘 될 거야” 하고 응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교수가 되면 영주권 절차가 간소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이민법의 기본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미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 교수들은 미국 입장에서 탐이 나는 인재들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들의 경우 이민 2순위 중에서도 조금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을 위한 영주권 2순위를 흔히 “EB-2 Special Handling Case” 라고 부르며 여기에서는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 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 케이스와 대학교수

케이스 모두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 하며 외국인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반케이스와 대학교수케이스는 고용주가 증명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지션에 대한 광고 뿐만 아니라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이 채용 과정에서 다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지원자보다 나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인 대학 측은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과정과 외국인 교수에 대한 추천서 등을 포함하면 해당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EB-2 Special Handling Case” 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 대학 교수 케이스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 심사(competitive

selection process)를 통해 교수로 선발되어야 하며 종신재직권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 (tenure track teaching positio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직 (researchers)은 일반적인 EB-2케이스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EB-2 Special Handling Case” 로 진행은 힘듭니다.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 간단하고 포함해야 하는 참고 자료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의 경우 고용과정에서 전문잡지 (professional journal)에 광고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하며 교수로 결정된 지 18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가 제출되어야 특별 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영주권 2순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수로 뽑혀 재직하지 18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혹은 고용 과정에서 필요한 광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2순위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주권 진행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2순위 대학교수 케이스 (EB-2 Special Handling Case)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 혹은 고 학력자의 영주권 진행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손: 20% 절약
- 돼지곰: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렌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적인 세일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던 2015년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5년간의 긴 세월동안 "이경해 부동산"을 애용해 주신 고객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후원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알찬, 전문적인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 화평과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경해 드림

BOSTON Edu Boston Education World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셈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셈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 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의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18(토)~31(목) 12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1. SAT I class(old, new)
-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 실력있는 강사진
- 실전문제 풀이중심(old)
-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new)
2. SAT II Subject test class
Math IC,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수업

2017년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기간: 2016년 2월말까지
-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 체계적인 계획에 맞춘 빈틈없는 입처리

각종 경시대회준비

수학경시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